

文學碩士 學位論文

# 동래온천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regarding Dongnae Hot Springs

指導教授 金 楨 夏

2008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東亞細亞學科 遠 藤 麻 衣

# - 목차 -

## 서론

## 본론

### 제1장. 온천의 특징과 목욕문화

- 제1절. 온천 및 목욕의 정의와 상식
  - (1) 온천 및 목욕의 정의
  - (2) 과학적 상식 및 의학적 상식
- 제2절. 한국과 일본의 온천문화 비교
  - (1) 온천에 관한 신앙
  - (2) 온천의 역사
  - (3) 온천 및 목욕 문화

### 제2장. 동래온천의 역사

- 제1절. 동래의 지역적 특징
- 제2절. 동래온천의 유래와 전설
- 제3절. 동래온천의 역사
  -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 (2) 조선시대
- 제4절. 일본인과 동래온천
- 제5절. 개항기의 동래온천
  - (1) 강필리의 온천비
  - (2) 일본인의 경영

### 제3장. 동래온천의 근대화

- 제1절. 일본인의 도항과 근대화
- 제2절. 전국의 온천개발 열풍
  - (1) 각 지방별 유명온천

(2)온천지의 근대문화  
제 3 절.동래온천의 새로운 경영

- (1)일본인의 온천 경영
- (2)“조선제일의 온천”

제4절.한국인의 동래온천 경영 참여

- (1)한국인의 경영 참여
- (2)대중목욕문화와 관광문화의 발상지

#### 제4장.해방 후의 관광문화와 목욕문화

제1절.온천관광 및 목욕문화의 확산

- (1)온천관광의 유행
- (2)공중목욕탕의 확산

제2절.온천관광지로서의 동래온천장

- (1)관광지로서의 동래온천장
- (2)동래온천장의 오늘과 내일

#### 결론

<日文 要約>

この論文は現在、釜山文化圏に属している東萊地方にある東萊温泉を通して韓国の伝統文化と近代文化の交差点をさぐり、その特性を明らかにする研究である。

釜山地方の文化圏について、東萊が釜山の一部なのか、それとも、釜山が東萊の一部なのかということは議論する余地があるが、伝統文化に主眼点を当て、民族主義的な視線で見たならば、開港期まで釜山は東萊地域文化圏の一部だったといえる。しかし、近代化以後、釜山が中心となってからは、東萊は釜山の一部となり、今日のような文化圏を形成することになった。

本論文では大きく4つに分けて東萊温泉をみることにする。

はじめに、温泉の常識と沐浴感について、次に東萊文化の伝統的側面について、次に温泉の本格的な開発と近代化について、最後に開放以後の釜山を初めとする全国各地、また、習慣となった沐浴文化、温泉文化について論じていく。

まず、本論第一章では、温泉の特徴と定義に簡単に触れながら、'温泉'の概念について理解し、同時に韓国と日本の温泉の歴史、及び、文化を比較していく。

第二章では、東萊温泉の歴史部分をみていく。東萊は地域的特性とともに新羅時代より朝鮮時代後期に至るまで、歴代の王たちを始めとし多くの人々が東萊温泉を訪れていた。特に英祖時代、東萊府使の姜必履が温泉を大々的に整備したことを記念して建てられた温井改建碑については、その後、開港期を向かえ日本人と東萊温泉の関係が深くなる過程以前と考えられるため、注意深くみていくことにする。

第三章では、東萊温泉の近代化を中心に当時の温泉開発、及び、利用方法を具体的にみていく。開港以後、日本人がどのような経路で温泉開発を本格化させたのか、また、開発に伴っての東萊住民の反応はどのようなもので、住民に対しての日本人の対応とその後温泉開発経営権を確立したことで料亭や旅館が増えた経緯をみていく。この章では、韓国人が温泉場経営に参加しながら温泉文化と観光文化が韓国人の間に広がっていく経緯も同時にみていき、東萊温泉が日本人街と変化していく過程での風俗の変化にも注目している。

第四章では、開放後の大衆温泉文化、及び、沐浴文化が東萊温泉場からどのように全国に拡散され観光と結びついたのかをみていく。

以上のようなことを整理しながら、本論文は温泉と沐浴について科学ないし定義とともに韓国の温泉の古代から朝鮮時代までの歴史と東萊温泉の伝統、そして、日帝時代の日本人の近代的施設具備、及び、経営を通して温泉観光地の温泉文化がどのように韓国人に広がり、開放以後、今日のような沐浴文化と観光文化が形成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かを東萊温泉の歴史と結びつけて論ずるものである。

# 서론

이 논문은 현재 부산 문화권에 속해 있는 동래의 온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근대문화의 교차점을 찾고 그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부산 지역의 문화권에서 동래가 부산의 일부인지, 아니면 부산의 중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전통문화에 주안점을 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본다면 부산은 개항까지만 해도 동래 지역의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에 만들어진 부산이 동래를 포섭하여 오늘과 같은 부산 지역의 문화권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동래는 조선조까지만 해도 역대 왕들이 요양을 하기 위해 찾던 곳이고 양반들이 살던 전통도시였다.

동래에는 동래학춤 외에 동래야류, 동래지신밟기 등의 독자적인 문화가 남아있고, 충신당을 비롯한 독진대아문, 망미루, 장관청, 송공단 등 동래부 관아건물 등 유서 깊은 건물이 남아있다. 동래부는 정치, 국방 면에서 요충지였고 오늘날의 부산이 상업도시인 것처럼 동래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주변지역의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전국적 유통망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왜관을 통해 들어온 일본인들과의 거래를 독점하고 있었다.

해방 후 동래가 부산에 속하게 되면서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는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넓은 의미에서의 부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히려면 동래를 이해하고 그곳의 전통문화에 대해 이해한 후에 일제가 근대문명을 들여온 근대기에 이르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한다고 본다. 부산 지역의 문화는 전통도시 동래의 문화가 ‘근대 식민도시’<sup>1)</sup>였던 부산의 문화와 습합(習合) 내지 접변(接變)을 일으켜 만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문화가 습합(習合)이나 접변(接變)의 결과라는 말은 서로 대등한 두 문화가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 논문에서도 동래온천의 한국적 역사와 전통이 일제에 의한 근대기의 변화와 섞였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즉, 동래온천에는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온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

1) 김정하,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성격에 관한 고찰」(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 제9집, 2005년) 참조.

용해온 한국 전통문화의 일부로서의 역사가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대중휴양지이자 관광지로서의 동래온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기에 부산을 건설하고 근대문명을 이입한 일제였다. 일제는 동래온천을 근대화 및 식민통치의 대상으로 ‘타자화(他者化)’<sup>2)3)</sup>하여 일본인들의 취향이나 식민통치 목적에 맞게 이를 재개발했다. 그러한 온천장의 건설과 이용, 운영에 한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소위 근대적인 의미의 ‘온천문화’, ‘관광문화’가 싹트기 시작해 이후에도 넓은 의미에서의 부산 지역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내력은 다른 많은 저작이나 논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된 내용이지만 그 계승과 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밝힌 연구는 드문 편이다.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온천에서의 숙박이나 치료, 관광에 관한 많은 안내책자가 나오고는 있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온천문화의 발전과 목욕문화에 관해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나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시스템에서 ‘온천’으로 서적이거나 논문을 검색 결과 자료는 총 100여 편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문화에 대한 연구는 10여 편이고, 특별히 ‘동래온천’에 관한 연구논문은 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1편, 지질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1편, 지리학적 측면에서 취락을 연구한 1편 등 도합 3편이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동래온천에서의 목욕문화의 계승과 변화를 토대로 부산 지역 연구의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나아가 대중적인 온천의 개발이 어떻게 한국인의 근대적 공중목욕문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시간을 초월하여 문화의 공통성을 재구하는 공시적(Synchronology)인 분석방법과 시간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의 의미를 따지는 통시적(Chronology)인 분석방법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한 분석에 의하여 전통문화로서의 동래온천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근대문화로서의 일본인에 의한 동래온천장의 개발 및 관광의 유행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중적

---

2)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1997년, PP.19~20.

3) 일제는 서구로부터 받아들여 학습한 근대문명의 관점을 동아시아의 식민지에 대하여 투사하여 ‘타자화(他者化)’했다. 이 경우 일제는 서구인의 입장에 서서 같은 동아시아인을 바라보는 리오리엔탈리즘(re-orientalism)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식민지에서 보존되고 계승된 전통문화나 시설마저 서구적 근대화를 닮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가치를 판단하기도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박람회 통해 드러나고 증식된 일제의 근대적, 제국주의적 시선이다.(요시미 순야 저, 이태문 옮김, 『박람회-근대의 시선』, 논형, 2004년, PP.141~148., PP.231~235.)

인 온천문화와 관광문화가 한국의 현대문화로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온천의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관점의 변화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논하는 방법론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한다. 특히 근대문화의 하나인 ‘관광’을 둘러싼 일제 시대와 해방 이후의 평가는 다르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에 의한 ‘관광’이 식민국을 대상화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타자화’의 과정 내지 결과임에 비해, 해방 이후의 그것은 주체적인 오락문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민통치 수단의 하나였던 ‘위생’ 관념과 ‘관광’에 대해서는 탈(脫)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고, 주체적인 오락문화에 대해서는 여가문화를 분석하는 관점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에 근접한 선행연구로는 「동래온천지역의 지열수와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 「온천의 법률관계-동래.해운대 온천을 중심으로」가 있고, 석사논문으로 김재관의 「동래온천 취락연구」와 윤양수의 「동래온천장의 도로교통 정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여타 온천에 관한 연구로는 「수안보 온천관광취락의 형성과 구조」, 「우리나라 온천지역의 도시화와 온천관광도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온천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인지도-온양.이천. 보문온천을 중심으로(溫泉觀光影響に對する地域住民認知度-溫陽.利川.普門溫泉を中心に)」, 「온천관광지 개발실태 조사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주로 온천관광지에 대한 지열수, 지하수 등 과학적 근거 내지 취락, 교통, 도시화 등 지리적 특성 내지 관광지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리 내지 과학을 포함 동래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까지를 다루고자 하는 이 논문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온천관광지의 지역 및 지역문화에 대해 쓴 논문으로는 「온천관광지 이미지, 속성 및 선호도 분석」이 있으나<sup>4)</sup> 온천의 역사와 지역문화를 함께 검토한 논

---

4) 한석용 외, 「동래온천지역의 지열수와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대한지질공학회, 『지질공학 제9권 제3호』(영어),1999), 김용욱, 「온천의 법률관계-동래.해운대 온천을 중심으로」(부산대법학연구소, 『법학연구』,1978), 김재관, 「동래온천 취락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1983년), 윤양수, 「동래온천장의 도로교통 정비에 관한 연구」(부경대 석사학위논문,1996년), 원학회, 「수안보 온천관광취락의 형성과 구조」(한국지리교육학회, 『지리학연구』, 1984년), 김홍운, 「우리나라 온천지역의 도시화와 온천관광도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교육학회, 『지리학연구』 1982년), 조성호, 이경자,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1998년), 김현

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다르지만 「유성온천과 유성문화」<sup>5)</sup>란 논문은 온천의 과학적, 의학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 인근의 연구단지, 자연과학공원, 대학교,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의식과 온천문화제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 논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저서로는 부산의 온천을 다루면서 일본과 한국의 온천관과 목욕풍습의 차이, 한국의 근대화에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한 다케쿠니 도모야스(竹國友康)의 『한국온천이야기(韓國温泉物語)』<sup>6)</sup>가 있다. 이 저서는 저자 자신도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1960년대에 김용욱 교수 등의 논저<sup>7)</sup>를 참조하여 쓴 것이다. 김용욱 교수는 근래에 『부산의 역사(歷史)와 정신(精神)』이란 저술을 출판하면서 그 안에 동래온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동래온천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저작이나 논문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부산 전반에 관한 저술 가운데서 일부를 할애해 동래온천을 소개하는 정도다. 근자에 나온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2007년 <부산 근대역사기념관>에서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란 기획전서 도록에 수록된 임화순 교수의 「동래온천의 근대사적 의미」<sup>8)</sup>란 논문이다. 임 교수는 이 논문에서 동래온천을 일본인을 위한 “보양형(保養型)”, “환락형(歡樂型)” 등으로 칭하면서, 특히 일본 국내의 온천들과 비교한 결과로써 동래온천의 네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임 교수의 논문은 온천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풍속이나 제도, 시설, 기관 등을 연관시켜 언급하여 동래온천을 통해 부산 지역의 문화를 고찰하려는 이 논문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임 교수의 논문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온천장이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인들만의 시설로 이용된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그 이전인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동래온천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래온천의 온천문화와 목욕문화, 관광문화가 일제 말기와 해방 이후

---

지, 「온천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인지도 - 온양. 이천. 보문온천을 중심으로(溫泉觀光影響に對する地域住民認知度-溫陽.利川.普門溫泉を中心に)」 (관광. 레저연구학회, 『관광. 레저연구』 2003년), 김현, 「온천관광지 개발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2007년), 김시중 「온천관광지 이미지, 속성 및 선호도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5년)

5) 안병기, 노재경, 「유성온천과 유성문화」 (『충남대학교지역개발논총』, 1995년)

6) 竹國友康, 『韓國温泉物語』, 岩波新書, 2004年.

7) 제길우. 김용욱, 『부산온천에 관한 연구』, 친학사, 1964년.

8) 임화순, 「동래온천의 근대사적 의미」 (부산근대역사기념관,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2007년)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문화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단절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온천이나 목욕에 대한 과학 내지 상식적 정의와 더불어 동래온천의 전통을 거론하여 한국의 온천문화가 단지 일제시대에 형성된 근대문화만이 아님을 거론하고자 한다. 그 위에 일제시대에 일본인의 근대적 시설 구비 및 경영을 통하여 온천관광지로 형성되었음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온천문화가 어떻게 일본인 뿐 아니라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퍼져 오늘날과 같은 목욕문화 및 관광문화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이 논문은 한국의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의 동래온천의 역사를 연결론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온천의 상식과 목욕관을 다루고, 다음은 동래문화의 전통적 측면, 그리고 본격적인 온천개발과 근대화,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부산을 비롯한 한국인의 삶에 스며든 온천문화, 목욕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를 본론 제 1장에서는 온천의 특징과 정의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온천'의 관념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온천의 역사 및 문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동래온천의 역사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동래의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신라시대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동래온천을 즐겨 찾아온 역사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영조시대에 동래부사 강필리가 온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음을 기념하여 세운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개항기를 맞아 일본인과 동래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 주의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동래온천의 근대화를 중심으로 당시 온천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즉 개항 이후 간헐적으로 온천을 이용하던 일본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그 이용을 본격화했는지 이에 대한 동래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다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 동래온천장 경영권을 확립하여 일본인여관과 요정 등을 만들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차차 한국인들이 온천장 경영에 참가하면서 온천문화와 관광문화가 한국인들 사이에 퍼져가게 된 경위도 살피려 한다. 더불어 이처럼 동래온천장이 일본인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의 풍속의 변화, 예를 들면 경편철도, 관부연락선, 경부선철도 등 교통 및 오락문화의 발달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해방 후에 대중온천문화가 어떻게 전국에 확산되어 관광과 연결되어 행해졌는가를 살펴보고 대중적인 온천문화 및 목욕문화가 동래온천장에서 확산되어갔음을 밝히고자 한다.

# 본론

## 제1장. 온천의 특징과 목욕문화

### 제1절. 온천 및 목욕의 정의와 상식

#### (1) 온천 및 목욕의 정의

먼저 온천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분류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온천에는 긴 역사가 있고 관련된 분야도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

일단 ‘온천’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지열로 뜨거워져서 솟아나는, 평균기온 이상의 온도를 가진 지하수”, 혹은 “(나)온천이 있는 지역(온천장). 즉 솟아나는 따뜻한 물과,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어느 쪽 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싶은 경우에는 “온천수”나 “온천지”라고 말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쪽이나 “따뜻한 물”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점은 같다. 한국은 2007년도 4월11일 일부 개정된 ‘온천법(법률 제 8343호 제 2조 1항)’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나온 사전에는 위에서의 (가)에 대해 “25도 이상의 온도”, 혹은 “특정한 성분의 정량 이상 포함”을 온천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8년에 만든 일본의 온천법에 천원(泉源)으로 채취되었을 때의 온도가 25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 성분 하나가 규정량 이상 포함되

---

9) 이에 비하면 다음과 같이 세계 각 지역의 온천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온천의 용출구의 온도에 의해, 냉광수(광물을 많이 포함한 물 25도 미만) 저온천(25~34도), 온천(34~42도), 고온천(42도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섭씨 25도 이상을 온천이라고 하고, 25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가운 광천이라고 정의한다. 광천이라고 함은 광물질이 많이 녹아 용출하는 따뜻한 지하수로서, 온도의 정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온천의 하한온도는 일본과 남아프리카에서는 25도라고 규정되어있고, 유럽에서는 20도, 미국에서는 21.1도로 하고 있다.(白水晴雄, Op.cit., P.21.)

어 있으면 ‘온천’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전국의 많은 온천은 온도와 함유성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sup>10)</sup> 게다가 일본의 온천법은 액체상태의 물이 아니더라도 지하에서 나온 수증기와 다른 가스(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온도 또는 성분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온천’이라 정의한다. <sup>11)</sup>

온천수에 용해되어 있는 성분의 양(농도)에 따라 온천수의 인체에 대한 침투압이 달라지므로, 인체의 세포액보다도 낮은 침투압을 가진 ‘저장천(低張泉)’(녹아 있는 물질이 물 1킬로그램 중 8그램 미만), 거의 같은 침투압을 가진 ‘등장천’(等張泉)(8~10그램), 그 이상의 침투압의 ‘고장천(高張泉)’(10그램 이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인체의 세포액과 같은 침투압을 갖고 있고 정맥주사와 링거주사에 사용되는 생리적 식염수는 증류수 1리터 안에 염화나트륨을 약 9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고장천’을 이용하면 온천의 성분이 세포막을 통해 사람의 체내에 가장 쉽게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다.

또, 침투압에 의한 분류법과 비슷해 약간 헷갈리기 쉽지만, 인체에 대한 자극의 강도, 즉 긴장도에 의해 온천을 대별하기도 한다. <sup>12)</sup>

이상과 같이 많은 온천분류법이 있고, 가장 널리 퍼진 일반적으로 사용되

---

10) 白水晴雄、『温泉のはなし』,技報堂出版,1994,PP.21-22.

11) 온천법이 규정된 것은 온천의 개발에 따라서, 용출량의 감퇴, 원천의 권리에 관한 분쟁 등의 문제가 생겨서 온천의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을 만들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이 아니고 차가운 지하수라 하더라도 유효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열하여서 입욕과 요양에 이용할 수 있다. 또 화산이나 온천지의 분기공(噴氣孔)에서 분출하는 수증기는 냉수를 가열하기도 하고 혼합하기도 하여, 온수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온천법에는 온천의 온수를 일반상식보다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온천은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분류법도 다종다양하고, 효용도 천질에 따라 여러 가지다.(白水晴雄,Op.cit.,P.22.)

12) 자극작용이 강한 것을 긴장성이라고 하고, 주된 천질은, 산성천(酸性泉), 유황천(硫黃泉), 단순탄산천(單純炭酸泉), 탄산철천(炭酸鉄泉), 녹마천(綠礬泉), 명마천(明礬泉)이 포함된다. 자극이 약한 것은 완화성이라고 하고, 단순온천(單純溫泉), 식염천(食塩泉), 중조천(重曹泉), 망초천(芒硝泉), 석황천(石膏泉), 중탄산토류천(重炭酸土類泉), 방사능천(放射能泉)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온천수의 성질에 의한 분류법 외에도, 온천의 성인(成因)이나 개발을 중시하는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온천의 열원이나 바위에 주목하여 화산성온천과 비화산성 온천을 대별하고 세분하고 있다.(白水晴雄,Ibid.,P.24.)

는 분류법은 온천성분의 함유성분의 종류와 그 비율, 결국 온천수의 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법으로서, 함유성분을 치료에 이용하는 ‘요양천’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여러 가지 천질에 따른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온천수에는 온천법에 규정 되어있는 성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온천이 무엇인가?'는 온천과 인간의 삶을 연결지어 파악해야 한다. 온천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시대나 문화적 습관, 제도나 법률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온천은 해당 지역이나 사회의 역사, 시대적 환경, 사회문화 등과 연결지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온천문화를 볼 때, 서양인들이 생각한 온천장은 크게 다섯 가지, 즉 위생, 휴양, 스포츠와 사교, 쇼핑, 환락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13)</sup> 첫 번째로 위생은 온천에서의 목욕으로 몸을 청결히 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두 번째로 휴양은 심각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도 여가의 오락이나 여흥, 즐거움을 온천에서 얻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인 스포츠와 사교는 온천의 주변시설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온천을 찾은 사람들이 교류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쇼핑은 온천장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으므로 온천장이 물건 구매의 장소로 활용되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환락은 온천장에서의 즐거움에 대한 추구가 지나쳐 종종 도박이나 매춘을 하는 무질서한 환락의 장소가 되는 면을 말한다.

## (2) 과학적 상식 및 의학적 상식

온천수에는 매우 많은 무기 성분이 녹아 있다.<sup>14)</sup>

대부분의 성분은 수중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온천수에 많이 포함된 주요한 양이온으로서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알루미늄 등이 있다. 음이온에는 염소이온, 유황이온, 탄산수소이온 등이 있다. 이러한 양, 음 이온은 용액의 전기적인 중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양쪽으로 균형을 유지한다.<sup>15)</sup>

13) 설혜심, 『온천의 문화사』, 한길사, 2001년, PP.235~271.

14) 白水晴雄, Op.cit.,P.25.

15) 온천수 중에 비교적 다량 포함된 주요한 성분의 양은, 비정상적으로 다량 포함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표 1>에서와 같이 대단히 넓은 범위로 바뀐다. 이 표에는

온천수의 함유성분은 개개의 온천에 따라 매우 다른데, 하나의 온천지 안에서 옆에 있는 온천과 다르거나 또, 하나의 온천에서도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성분 외에도 온천법에서 온천의 규정 근거가 되는 성분, 혹은 치료에 이용되는 별도의 특수한 성분이 있다.

다음은 온천의 효능에 대해 의학적인 측면에서 알아보자.

1868년, 일본에 서양의학이 도입 되면서, 온천도 현재 의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온천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양’,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 등의 목적으로 온천이 이용 될 수 있다. 16)

몸에 대한 온천의 효과로서는 온열효과가 있다. ‘온열효과’ 라고 하는 것은 온천의 따스한 온기(열)에 의한 효과이다.17) 거의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목욕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진정하는 작용을 하여 신경계와 순환기계의 흥분을 억누르는 작용을 한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목욕물에서는 교

다시, 지구상의 물의 약 97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해수의 과학조성도 설명되어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온천수의 함유 무기성분의양은 변화가 풍부하다. 철과,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도 평균치는 해수보다 일반적으로 소량이 같은 정도지만 해수보다도 훨씬 다량을 포함하고 있다. 온천수의 용해성분의 총량의 평균치는 물 1 킬로그램중에 약 4그램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수십 그램, 때에 따라서는 100그램 이상에 달한다. 해수의 용해성분의 총량은 1 킬로그램 중 35그램이다.

<표1> 일본의 온천수와 바닷물의 주요화학조식(mg / kg)

성분	일본의 온천수		바다 물
	일반적인 함유량	평균 함유량	
나트륨이온(Na <sup>+</sup> )	20 ~ 20000	770	11000
칼륨이온(K <sup>+</sup> )	5 ~ 5000	43	390
칼슘이온(Ca <sup>2+</sup> )	10 ~ 5000	220	410
마그네슘이온(Mg <sup>2+</sup> )	2 ~ 1000	55	1300
철이온(Fe <sup>2+</sup> 、Fe <sup>3+</sup> )	0.01 ~ 15000	310	0.003
알루미늄이온(Al <sup>3+</sup> )	0.01 ~ 7000	95	0.001
염소이온(Cl <sup>-</sup> )	10 ~ 45000	1250	19000
황산이온(SO <sub>4</sub> <sup>2-</sup> )	20 ~ 50000	1700	2700
탄산수소이온(HCO <sub>3</sub> <sup>-</sup> )	10 ~ 9000	480	140

16) 日本温泉科学会, 『温泉学入門』, コロナ社, 2005年, P.68.

17) 日本温泉科学会, Op.cit., P.69.

감신경을 자극하여 신경계와 순환기계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과학적 인자(함유성분)에 의한 효과도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함유성분에 의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인자에 의한 효과이다. 특히 온열효과는 온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 입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함유성분에 의한 효과는 온천에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온천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화학성분은 입욕으로 인해 피부로부터 육체 내에 흡수되는 약리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목욕물의 온도가 높을 때, 장시간 입욕할 때, 온천의 함유성분의 농도가 높을 때에는 피부에 닿는 온천물의 성분이 조금씩 체내에 흡수되어간다. 또 온천수를 마시는 경우에는 마시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와 같이 온천수 안의 화학성분이 장으로부터 흡수되어 약리작용을 한다.<sup>18)</sup>

온천수를 직접 사용하는 입욕은 통상의 입욕 외에도 마심으로써 치료하는 “음천” (飲泉) 이라는 치료법도 있다. 음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물을 마셨을 때 온천물에 포함되어있는 성분이 소화기관으로부터 흡수되므로 약을 마시는 것과 똑 같은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sup>19)</sup> 음천의 방법은 온천의사의 권유에 따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다.<sup>20)</sup>

그 밖의 온천효과로는 온천지로 가는 여행 자체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이다. 온천지의 기후환경과, “온천에 가고자 하는” 기분은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여 마음의 요양효과도 크다. 또한 온천지에 가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개방적인 것이고 그것에 의한 정신적인 효과가 몸에도 플러스로 작용한다.

---

18) 日本温泉科学会,Op.cit.,P.70.

19) 원천으로부터 용출한 온천물은 감압과 산화, 온도의 저하 등에 의해 시간이 가면서 천질이 변화하므로, 요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솟아난 직후의 온천물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日本温泉科学会,Ibid.,P.72.)

20) 한국은 음천 문화가 보급되지 않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큐슈의 오이타현에 있는 ‘츠카노광천’이 옛날부터 음천이 문화로 정착된 온천지이지만 일본 전체를 놓고 보면 음천 습관은 별로 정착되지 않았다.

## 제 2 절. 한국과 일본의 온천문화 비교

### (1) 온천에 관한 신앙

고대 한국인은 모든 자연물에 신이 머물러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천이라는 샘에서도 신의 존재를 감지하고 온천물을 신체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 산의 암반에서 솟아나는 산수를 “약수”라고 부르며, 사람들은 신성한 물로서 숭상했다.

약수는 병을 치료하는 효능과 그 밖의 이익을 주는 대단히 고마운 물로, 이를 마심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전국각지에 퍼져 있었다.<sup>21)</sup>

강원도 인제군의 방태산에 있는 ‘방동약수’는 1670년에 한 심마니에 의해 발견된 이래 약효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 들었다. 차차 이곳 약수터 앞에는 불교 천태종의 본산인 말사인 약수사가 세워져<sup>22)</sup> 심신의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산으로부터의 혜택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약수마시는 일을 신앙의 차원에서 행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유서 깊은 온천지에는 “토우젠신사(湯前神社)”나 “온천신사(溫泉神社)”, “유신사(湯神社)”라 불리는 기도처가 세워져 있다. 또 온천의료 신화에 불교가 영향을 미치면서 약사여래신앙을 숭배하여 오래된 온천지에는 ‘반드시’라 해도 좋을 만큼 어디에나 약사여래당이 건립되어 있다.<sup>23)</sup> 또, 각지에 있는 온천을 발견한 사람으로 “야마토 타케루노 이코또, 신공황후, 쿠카이” 등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고대의 문헌에 온천의 기록이 많은 것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불(神佛)의 인도에 의해 온천이 발견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로 인해 병을 고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와 짝을 이루어 온천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sup>24)</sup>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천을 신비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는 효능은 과학적으로 온천물 안에 유효한 성분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몸에 있는 병을 완치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인간의 삶에서는 과학적인 개념보다도 그 본래의 모습은 역시 신성한 신의 물이라고 생

21) 秋葉隆, 『朝鮮民族誌』, 六三書院, 1954년 영인, P.258.

22) 전상국, 『강원전통문화총서』, 国学資料院, 1997년, P.404.

23) 白水晴雄, Op.cit., P.114.

24) 白水晴雄, Ibid., P.113.



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온천수가 병마를 쫓고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마술적인 의미의 신앙은 오늘날도 여전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마음에 남아있다.

## (2) 온천의 역사

### 가. 한국 온천의 역사

한국에서 온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타난다. 고구려 본기에 서천왕 17년(286년)에 “왕의 동생인 일우(逸友), 소발(素勃)이 모반하였을 때 질병을 사칭하고 온탕에 가서 온갖 무리들과 어울려 유락(遊樂)을 즐겼다.”<sup>25)</sup>고 했다. 그리고 신라 성덕왕(聖德王) 11년 (712) 4월에 왕이 온천으로 행차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삼국사기』에는 온천지에 관한 기록이 온양에 관해 1회, 『삼국유사』에는 동래에 관해 1회가 나온다. 한국에서 온천장으로 역사 기록에 처음 이름이 나온 곳이 바로 동래온천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 고기(古記)에 신라 제 31대 신문왕(神文王) 때인 영순 2년(683년) 계미(癸未)에 재상 충원공(忠元公)이 장산국(叢山國) 온정(溫井)에 목욕하고 환성(還城)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sup>26)</sup>

고려시대에는 피부질환, 안질, 종기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천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총 19건의 온천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동래(1회), 괴주(1회), 유성(1회), 온양(1회), 평해(1회), 영산(1회), 평주(8회), 백주(1회), 이천(1회), 고성(1회), 성주(1회) 등이다.<sup>27)</sup>

목종 6년 (1003년)에 한언공(韓彦恭)이 중병을 앓을 때에 왕이 의약품과 기타 일용생활용구를 하사하면서 온천에 가서 목욕요법을 시행하도록 권하였다. <sup>28)</sup> 그리고 공양왕 경오 2년(1390년) 겨울10월에 “초하루 기미일에 문하평리 최윤지를 송경 수성 절제사(松京守城節制使)로 임명하였다. 전 상의 첩서 우홍수를 파견하고 이성계에게 술을 주었는데, 그때 이성계는 병으로 휴가를 얻어 관문온정(關門溫井)에 가 있었다.”<sup>29)</sup>는 기록이 있다. 같은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6권』, P.121.

26) 崔云鉉, 「아산지역 온천관광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P.3.

27) 崔云鉉, Ibid., P.31.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6권』, P.121.

공양왕 2년에 이성계(李成桂)가 질병으로 관문온정(關門溫井)에서 요양하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조선시대의 온천에 대한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왕들과 신하들의 온천이용, 왜인들의 동래온천 이용, 온천의 수리 등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자료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선시대 왕의 수는 총 27명이다. (연산군, 광해군 포함) 이 중 조선왕조실록에서 온천에 행차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왕은 10명이다. 각 왕별로 온천에 행차한 횟수를 살펴보면 태조9회<sup>30)</sup>, 정조1회<sup>31)</sup>, 태종5회<sup>32)</sup>, 세종3회<sup>33)</sup>, 세조4회<sup>34)</sup>, 선조1회<sup>35)</sup>, 현종7회<sup>36)</sup>, 숙종6회<sup>37)</sup>, 영조4회<sup>38)</sup>, 정조2회<sup>39)</sup>이다. 이렇게 10명의 왕들이 온천에 행차한 이유는 대부분 질병의 치료에 있었다.

조선시대 세종 20년(1438년)에는 ‘온정규칙’을 제정하고 숙종 17년(1691년)에는 동래부사 김홍복이 새로운 온천을 파서 온정 옆에 온정가(溫井街)를 두어 이곳을 관리하게 하였다.

또, 『조선왕조실록』 세조 14년 2월2일 자를 보면 온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목천(木川) 사람 전 선공 녹사(繕工錄事) 전사례(全思禮)가 상서(上書)하기를, 신**

---

29) 『고려사』, 제45권-세가 제45.

30) 『조선왕조실록 1집』, P.27, P.42, P.76, P.90, P.103, P.117, P.147, P.213, P.336.

31) 『조선왕조실록 1집』, P.184.

32) 『조선왕조실록 1집』, P.214, P.247, P.662., 『조선왕조실록 2집』, P.216, P.313.

33) 『조선왕조실록 3집』, P.462., 『조선왕조실록 4집』, P.223, P.338.

34) 『조선왕조실록 7집』, P.615, P.703., 『조선왕조실록 8집』, P.14., 『조선왕조실록 10집』, P.473.

35) 『조선왕조실록 25집』, P.200.

36) 『조선왕조실록 36집』, P.459, P.503, P.551, P.558, P.621, 39집, P.168, 40집, P.27.

37) 『조선왕조실록 38집』, P.513., 『조선왕조실록 39집』, P.168., 『조선왕조실록 40집』, P.636, P.639., 『조선왕조실록 41집』, P.554., 『조선왕조실록 42집』, P.280.

38) 『조선왕조실록 42집』, P.680., 『조선왕조실록 43집』, P.354, P.380., 『조선왕조실록 44집』, P.359.

39) 『조선왕조실록 46집』, P.59, P.411.

(巨)은 그옥이 들건대, 온천(溫泉)이란 것은 신지(神祇)가 덥게 하는 것이니, 주로 모든 질병(疾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인간(人間)에 나온 곳은 더욱 중합니다. 여러 날을 덥게 잠겨서 휴식(休息)하고 조섭(調攝)하면, 혈액(血脈)이 순하게 통하고 원기(元氣)가 가득히 소생하여, 아양이 저절로 없어지고 악질(惡疾)이 나오니, 그 사람에게 이익 있음이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기전(畿甸)의 안에 다 널리 온천(溫泉)을 구(求)하였으나 마침내 얻을 수가 없었으니, 성상의 진려(軫慮) 뿐만 아니라, 바로 일국(一國)의 신민(臣民)이 한가지로 한(恨)이었던 것입니다.

본도(本道)의 온양(溫陽)은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두어 밤 묵어서 이르며, 길이 평이하여 다니기에 어렵지 않고, 또 물의 성질이 적당하여 잠기어 목욕하기에 편리하고, 여러 다른 물들에 비하여 효험을 얻음이 매우 빠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금(千金)같이 소중한 아들은 마루 끝에 앉히지 아니하고, 그 관계되는 것을 지극히 중히 한다.’ 하였는데, 하물며 전하(殿下)의 일신(一身)은 종묘(宗廟) 사직(社稷)의 의탁한 바이며, 신민(臣民)이 첨앙(瞻仰)하는 것이겠습니까? 만기(萬機)의 사이에 혹 화기(和氣)를 여기는 것이 있으며,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 하여 밀치심도 옳지 않다고 신의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절절(切切)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언(俗諺)에 이르기를, ‘1일을 목욕하면 3일은 휴식(休息)함이고, 2일은 목욕하면 6일을 휴식함이다.’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면 목은 병이 제거될 것이고 풍증(風症)에도 해로움이 없으니, 진실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원기(元氣)가 충분치 못하여 도리어 풍증에 상(傷)하는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목욕하는 날이 오래 되고 휴식하는 것도 또한 오래되면 목욕하는 효험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sup>40)</sup>

이처럼 왕들은 온천이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치료를 위해 온천을 찾았다. 하지만 왕의 온천행차는 많은 폐단들이 있어서 행차 횟수가 많지는 않았다. <sup>41)</sup> 이러한 폐단의 가장 큰 이유는 온천이 궁궐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궁궐에서 가까운 온천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sup>42)</sup> 또한 조선 세조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40) 『조선왕조실록 8집』, P.159.

41) 기호 두 도에 쌀 7백석을 내려 거동 때 역을 한 백성에게 줄 비용에 보태게 하다. 기호(畿湖) 두 도에 쌀 7백 석을 내려 온천 거동 때 역(役)을 한 백성에게 줄 비용에 보태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거동 때 두 도의 민폐를 생각하여 특별히 쌀 1천 석을 주었는데, 기백(畿伯) 유복명(柳腹明)이 아뢰기를, 이번의 역사는 모두 전부(田夫)로 하여금 길을 닦게 하였으니, 쌀을 줄 필요가 없으며, 비용을 아끼는 도리에서 환납(還納)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전부들이 길을 명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지만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도록(『조선왕조실록 43집』, P.383.)

42) 문폐사가 논핵한 지방관의 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다. 온천(溫泉)이 난 곳을 알리는 사람

온천을 이용하려고 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도 보인다.

“온천욕을 원하는 자를 금하지 말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왕지(王旨)를 받들어 충청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에게 치서하기를, “온양 온천(溫陽溫泉)에 무릇 목욕하고자 하는 자는 어정(御井) 어실(御室) 외에는 금하지 말라.”<sup>43)</sup>

온천의 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3회의 온천 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sup>44)</sup>

세조34년(을미)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듣건대, 충청도(忠淸道)가 실농(失農)하였다고 하는데, 오는 봄에 온양(溫陽)에 행차(行次)하는 것이 마음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江原道) 고성(高城)이나 황해도(黃海道) 배천(白川) 해주(海州) 등의 온정(溫井)에 거둥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이 좋겠는가?” 하니, 승정원과 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이 대답하기를, “온양(溫陽)의 옥사(屋舍)는 완전히 갖추어져 지금 다만 이를 수리(修理)할 뿐입니다. 만약 고성(高城) 배천(白川) 해주(海州)이면 옥사가 없으므로 그때까지 창건(創建)하지 못할까 걱정되니, 온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실농(失農)하였다고 하나 행행(行幸)하는 모든 일이 지극히 간략하니, 어찌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전지(傳旨)하기를, “이른바 세 온정(溫井)은 내가 또한 후일에 마땅히 가겠으니, 아울러 옥사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또 동래(東萊)가 비록 멀지만 오히려 갈 만하니, 아울러 수리하라.” 하니, 윤자운이 아뢰기를, “동래(東萊)는 신(臣)이 친히 보았는데, 관사(官舍)가 완전하고 좋으니, 비록 고쳐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거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sup>45)</sup>

위의 내용처럼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온천의 수리에 관한 부분들은 왕의 행차를 맞이하기 위해 수리를 했다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역사 기록을 보면 온천은 일반인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이 있으면 5품계(品階)를 뛰어넘어 관직을 제수하고, 상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은 면포(綿布) 2백 필을 주고, 천민(賤民)의 신분을 면하려는 사람도 또한 들어주고, 그것을 여러 고을에 널리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조선왕조실록 8집』, P.46.)

43) 『조선왕조실록 7집』, P.714.

44) 『조선왕조실록 4집』, P.351., 『조선왕조실록 7집』, P.664., 『조선왕조실록 7집』, P.710.

45) 『조선왕조실록 7집』, P.664.

이 아니라 왕을 비롯한 양반들이 병을 치료하거나 쉬기 위해 이용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온천문화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특권층의 전유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온천의 이용에 사회계층의 문제가 걸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나.일본 온천의 역사

여기서는 일본의 온천의 역사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비교하는 이유는 훗날 일제시대에 한국에 온천문화를 들여온 일본인들이 원래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서민들도 온천을 이용하는 풍속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른바 “화산(火山) 대국”이므로 오랜 옛날부터 온천을 아주 친근하게 생각하여 ‘온천여행’을 좋아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대다수 온천지에는 오락시설과 그 지방의 향토요리, 문화유산 등을 즐기는 코스를 만들어 관광지화 하였다.

일본에서의 온천의 역사는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 『풍토기(風土記)』에 이미 나타난다. 특히 아이치현의 이오노유(伊予の湯)(도고), 효고현의 아리마노유(有馬の湯), 와카야마현의 모로우노유(牟婁の湯)(시라하마)는 일찍부터 역사에 나타난 온천이다. 아리마 온천에서는 신큐 원년(724년)에 승려 코기가 병인 치료를 위하여 온천을 부흥하여 약사여래를 모시는 일사삼원(一寺三院)을 세웠다고 한다. 또 8세기의 나라시대에 편찬된 『이즈모국 풍토기(出雲国風土記)』에는 “조정으로 나아가는 관리들이 목욕재계를 하거나 남녀노소가 모여서 잔치를 즐기기도 하고, 일단 온천에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고 다시 몸을 담그기만 하면 병이 치유된다고” 했다. 온천을 “사람들은 신의 탕이라고 불렀다”는 말은<sup>46)</sup> 온천에 의한 치료가 신교 및 불교의 진흥과 일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온천수에 의한 치료는 점차 전국 각지로 넓어진다. 일본에서 온천에 관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나라시대(710년~784년)의 것이다. 민족학자인 야나기다 쿠니오에 의하면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욕을 의미하는 증기목욕이었다” 라고 한다. “‘후로’는 ‘무로(室)’가 변하여 된 것으로 후로의 원형은 무로를 이용한 증기목욕이었다”고 야나기다 쿠니오는 보고 있다.<sup>47)</sup>

46) 日本温泉科学会, Op.cit., P.97.

47) 八岩まどか, 『温泉と日本人』, 青弓社, 2002年, P.32.

또 증기목욕의 형식이 일본에서 주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옛날부터 물에 대한 풍습이 있었던 것과 헤이안 시대(794年~1185年)에 사원과 신사가 번영했다는 사실 등의 영향인 것 같다. 이 때 스님들에 의해 슈센지, 호시, 아마미, 하코네, 벳부 등의 온천을 치료 등의 목적을 위해 개척되었다.

물론, 온천장 근처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온천을 이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또 가마쿠라시대(1185年~1333年)부터 무로마찌시대(1392年~1573年)에 걸쳐 상품경제가 마을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포함하여 발전되었으므로 온천이 공공물로써 이용되어 사원에서의 입욕은 점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곧바로 목욕탕(風呂), 유야(湯屋)의 경영이 개인에게 위탁되었다.

‘유야’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의 목욕탕을 설치한 집의 형태로 현재 일본 각지에 존재하는 공중목욕탕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목욕탕은 단지 입욕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공공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였다.

또, 궁정귀족이나 무사도 거의 유흥장처럼 이용하게 되고, 전국시대에는 각지의 온천이 부상자의 치료에 많이 이용되었다. 유행을 포함하는 목욕물은 베인 상처에 좋은 효과가 있어 부상자의 치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렇듯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목욕물이 아주 귀중한 치료약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 꽤 광범위하게 일반서민들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도시대(1603年~1867年)에 들어서면서이다. 카이바라에키깡<sup>48)</sup>, 고토콘잔<sup>49)</sup> 우타가와 요우안<sup>50)</sup>들에 의해 온천치료의 의학적인 연구가 시작 된 것도 큰 요인의 하나였다. 온천치료의 저서가 출판되고 입욕법, 음천법, 적응증 등이 기술되었으며 그림으로 설명된 온천안내서등도 발간되어 온천치료가 보급됐다. 각지에 있는 번에서는 탕역소(湯役所)를 만들어 공공탕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다. 공공탕은 서민이 입욕하는 잡탕(雜湯)과 총탕(總湯), 번의 우두머리와 간부들이 이용하는 전양탕(殿樣湯)과 카기유(かぎ湯) 초닌탕(町人湯),

---

48) 카이바라 에키깡(1630~1714): 에도시대 전기의 유학자, 교육자, 본초학자, 저서 『진신록』 『대의록』 『대화본초』 등 .

49) 고토콘잔(1659~1733): 에도 중기시대의 유의(儒醫).

50) 우타가와 요우안 (1798~1846): 에도시대후기 네덜란드에서 전해진 의술을 배운 의사(蘭医·科学者)

그리고 사무라이탕(さむらい湯)으로 구별했다.<sup>51)</sup>

이윽고, 서민들 사이에서도, 목욕법을 만들어 깃돈을 부어 순서에 따라 온천에 가는 풍습을 시작하여,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농한기 등에 매년 정해 놓은 온천지에 가서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온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온천지에는 숙박하는 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욕장(外湯)이 생겼다. 목욕을 위한 숙박 시설에서는 주로 자취를 하며 이불과 솔 등을 가지고 갔지만, 각지의 여행자 숙박시설에서 간단한 식사를 내는 곳이 생기면서 온천지에도 같은 시설이 만들어져 그 안에 욕장(內湯)을 가진 여관도 생겨났다.<sup>52)</sup>

에도시대 중기를 지날 즈음이 되어, 도로와 숙박시설이 정비되어 서민들은 이세신궁 참배와 센코지 참배의 여행에 나서게 되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온천을 두루 들러 불도수행 기간이 끝날 때 갖는 ‘쇼우진 오토시(精進落し)’ 연회를 즐겼다. 온천은 목욕을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행락의 장이 되었다.<sup>53)</sup> 단체로 동시에 온천 대욕장에 들어가 그 후에 연회를 즐기는 이 일본 특유의 풍습은 이즈음부터 시작되었다.

### (3) 온천 및 목욕 문화

19세기 근대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목욕문화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 우선 한국은 비교적 공기가 건조했으므로 자주 몸을 씻어야 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왕조가 유교적 규범을 강조하면서 남녀의 자리마저 엄격하게 구분하는 터에 피부를 드러내는 일은 엄격히 금기시되었다.<sup>54)</sup>

그러므로 목욕이나 목욕시설 모두 동기를 찾기가 어려웠고,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라(全裸)가 되어 목욕탕에 들어가는 풍습은 없었다. 그저 여름 저녁에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나 개울에서 간단하게 목욕을 하는 정도였다. 일상에서의 목욕은 실내에 욕조를 준비하여 얼굴이나 손, 발, 머리카락, 상반신, 하반신을 씻는 ‘부분욕’ 중심이었다. 흑간 마을에

51) 白水晴雄, Op.cit., P.114.

52) 물론 이러한 내탕(內湯)은 1925년 무렵까지도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으며, 도리어 식민지 조선에서 더 유행했다.

53) 八岩まどか, Op.cit., PP.104~105.

54) 竹国友康, 『韓国温泉物語』, 岩波新書, 2004年, P.4.

서 동제를 거행하는 날 새벽에 제사를 지내기 직전에 제관이 개울이나 폭포에서 몸을 씻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부분욕’을 하든, 온천에서 신체 전부를 담구는 ‘전신욕’을 하든, 모두 “목욕한다”고 표현한다. 사전에도 ‘목’(沐)은 “머리를 감는 일”, ‘욕’(浴)은 “몸을 씻는 일”이라고 기술되어 있다.<sup>55)</sup> ‘목욕’이라는 말은 반드시 몸 전체를 탕 안에 집어넣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를 정갈하게 하는 일”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목욕한다’는 말은 실제로 ‘전신욕’일 수도 있고 ‘부분욕’일 수도 있다.

일본에서의 ‘목욕’은 욕탕에 전신을 담그는 ‘전신욕’이 일반적이다. 일본어로는 욕조에 들어가는 것을 “입욕한다.”고 말하고, 욕조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을 “욕탕에 들어간다.”라고 다르게 표현한다. 어느 경우든 목욕통에 전신을 담구는 전신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반신욕’이라고 구별해 표현한다. 그런데 일본도 지금은 ‘목욕’이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헤이안 시대에는 ‘목’은 “머리를 감는다.”는 의미, 혹은 “머리를 감기 위해 사용하는 쌀즙(=시로미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비해 ‘욕’은 “물을 뒤집어쓰다”, 혹은 “목욕물을 부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일본인에게 ‘목욕’과 ‘욕’은 같은 의미이므로 ‘목욕’이란 “머리를 감는 목욕물을 사용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의미했다.<sup>56)</sup>

또, 한국과 일본은 목욕을 하는 시간대가 약간 다르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목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목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누가 먼저 목욕물에 들어가도 상관 없지만, 일본에서는 일단 목욕물을 데우면 온 가족이 같은 목욕물을 사용하는데 가장 깨끗한 물은 가장(대개의 경우 아버지)이 먼저 사용하는 전통이 있다. 이는 연장자를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에서 나온 습관이라 보인다.

다음은 온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에서 온천은 주로 목욕에 이용되어 왔지만 실제로 온천의 이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한국에서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체질과 수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발부터 다리`허리, 상체의

---

55) 竹国友康,Op.cit.,P.7.

56) 八岩まどか,Op.cit., P.28.



순으로 물에 넣고 보통 3~4시간 정도로 목욕을 실시한다. 지나치게 물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치료를 위해서는 7~10일 간 목욕을 실시하지만, 그 이상 장기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부질환·골절상에는 30분에서 1시간씩 하루 3회 정도가 좋다고 본다. 고혈압 환자는 5~10분 간,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가벼울 정도로 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는 한 시간이 경과 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나 음주를 했을 때는 욕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sup>57)</sup>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온천에서 증기욕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오늘날의 한증막의 원형인 "한증"이라는 증기욕이 바로 그것이다. 한증의 이용 방법은 가마 속에는 소나무나 마른 솔잎 등을 태워 내벽을 뜨겁게 하고 불이 꺼진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남은 재를 꺼내고 젖은 명석을 깔고 고온의 가마 속에 욕객들이 들어가서 앉는 것이다. 온 몸에서 땀이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땀이 나면 밖으로 나와서 준비해둔 온수나 찬물을 끼얹고 땀과 함께 때를 벗겨낸다.<sup>58)</sup>

그런데 이는 현재 일본 일부지방에서 행해지는 '온돌욕'과 비슷하다. 온돌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뜨거운 온천물을 상 아래에 끌어들여 그 위에 몸을 옆으로 누우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요양방법으로 발한작용이 촉진되어 온열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 방법은 증기지대의 뜨거운 암반위에 직접 돛자리를 깔고 그 곳에 옆으로 누워 온욕을 하는 것이다.<sup>59)</sup> 암반으로부터의 온열효과 뿐만 아니라 증기공과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성분을 머금은 증기 등을 동시에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 효과가 높다.

한국의 한증과 일본의 온돌욕을 비교해보면, 증기욕은 가마 안을 데워서 내벽을 뜨겁게 해서 그 안에 손님들이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일본의 온돌욕은 온천물을 상 아래에 끌어들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암반욕(岩盤浴)이다. 일본에서는 땀을 흘려도 때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물로 씻고 끝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때를 벗겨서 몸을 청결히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

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6권』, PP. 121~122.

58) 竹国友康, Op.cit., PP.8~9.

59) 日本温泉科学会, Op.cit., P.75.

## 제2장. 동래온천의 역사

### 제1절. 동래의 지역적 특징

동래는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하는데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약 12킬로미터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강 온천천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 온 지역이다. 기후가 온난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하천이 발달하고 해안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여 원시시대부터 조상의 생활터전이 되었다. 동북쪽에는 장산(叢山, 해발 634미터) 북면에는 금정산(해발 801미터)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주택지를 형성하고 동래온천, 금강공원, 범어사 등 각승 고적지가 많아 관광지로도 유명하며 경부고속도로 및 남해안 고속도로의 진입지로서 육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다. 바다와 산과 평야가 어우러져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동래구는 지역이 광활하여 부산시 전체의 40%인 140.7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이주지 및 구역정리사업 지역이 많아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이 높다.<sup>60)</sup>

한국의 온천 대다수는 중생대 화강암, 즉 ‘대보화강암(大寶花崗岩)’과 ‘불국사화강암(佛國寺花崗岩)’ 지대에서 용출되며 몇 곳의 변성퇴적암지대에서 용출되는 온천도 가까운 부근의 화강암 암주 등과 관련돼 있다. 온천수의 용출은 화강암류 내의 열극, 단층, 파쇄대(破碎帶)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동래온천의 지질을 이루며 온천의 천열을 공급하는 암석 역시 화강암에서 갈라진 반심성암(半深成岩)이자 석영반암(石英斑岩) 종류의 흑운모규반암(黑雲母珪斑岩)이다. 이 암석은 동래온천장 뿐 아니라 그 서쪽 금정산 일대에 넓게 분포한다.<sup>61)</sup>

60) 동래와 해운대지 편찬위원회, 『동래와 해운대』, 세명출판사, 1980년, P.13.

61)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東萊溫泉調査報告,慶南の産業』,大和商會印刷所,1924年, P P 2 2 ~ 2 7.

## 제2절. 동래온천의 유래와 전설

‘동래’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우선, 고대 변한시대(기원전 1세기쯤)에 이 지방의 옛날 이름인 동로국(瀆瀾国)에서 ‘동로’라는 음성이 변화해 그것을 같은 의미의 한자인 동래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설이 있다. 또 동쪽 바다에 신선경 봉래산이 있다고 하는 중국의 고대 전설에 근거하여 ‘동래(東萊)’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설도 있다. 62)

동래에 있는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수증기와 물로, 주위만 뜨겁게 되거나 강물이 끓거나 눈이 쌓이지 않고, 유황의 냄새가 나므로 주변의 환경과 모습이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을 끌어 들였을 것이라 믿어진다. 온천을 발견했다는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로는 사슴, 곰, 여우, 원숭이, 멧돼지, 소, 너구리, 학, 거북이, 뱀, 황새, 휘파람새, 비둘기 등이 있다.63) 이 중에서도 동래 온천을 발견한 동물은 학이라 일컬어진다.64) 학은 옛날부터 장수의 동물로서 친하게 생각하여 동래에서는 백학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시대에 동래마을에 다리가 아픈 노파가 있었다. 어느 해 봄 집 근처에 있는 밭에 백학 한 마리가 날아왔고, 다리를 끌면서 주변을 맴 돌았다. 그 모습을 본 노파는 같은 입장에 처한 백학을 동정하여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이를제도 삼일 제도 학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노파는 불쌍한 백학을 먼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자니 백학의 다리가 완치되어 그 주변을 기뻐하면서 몇 번인가 맴돌며 힘차게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놀라서 노파는 백학이 있던 장소에 가보니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노파는 이것이 백학의 다리를 고치는 약이 되는 샘물이라고 생각하여 끌고 다니던 쪽 다리를 넣어보니, 생각대로 효과가 있어서 며칠 후에는 아팠던 다리는 옛날처럼 되어 불편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소문은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 드디어 나라 전체에 알려져 마을사람들이 온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래는 학과의 관계가 깊은데 현재에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동

62)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Op.cit., P.11.

63) 日本温泉科學會, Op.cit., PP.58.59.

64) 부산민학회, 『부산을 배움시다』, 2004년, P.220.

래의 서남쪽 연산리까지 학이 무리를 지어 날아왔다고 한다.

### 제3절. 동래온천의 역사

#### (1)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동래는 부족(部族)시대에 “거칠산국(居漆山國)”, “내산국(來山國)” 등으로 불렸으며 그 시대 유적인 고분이 연산동(蓮山洞), 복천동(福泉洞) 일대에 산재해 있다.<sup>65)</sup>

다음과 같은 『삼국유사』의 기록은 동래온천이 예전부터 상처를 치료하는 효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신라 제31대 신문(神文)왕대 영순(永淳) 2년에 재상 충원공이 장산국(즉 동래현(東萊縣)이니 내산국(萊山國)이라고도 한다)의 온정에 목욕하고 환성할 때 굴정역(屈井驛) 동지야에 이르러 잠깐 쉬었더니 홀연히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게 하며 꿩이 날아 금악을 넘어 간 곳이 묘연했다. 방울소리를 듣고 찾아가 굴정현(屈井縣) 민가에 이르니 매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꿩은 우물 속에 있는데 물이 피 빛 같았다.<sup>66)</sup>

여기서 “장산국”이 과연 오늘날의 동래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의 장산이 지금 해운대의 장산(叢山)인 것만은 틀림없으므로 장산국이 그 산록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sup>67)</sup> 다만 장산국을 “동래현(東萊縣)이니 내산국(萊山國)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한 문장에서의 “내산국”의 내산(萊山)이 지금의 동래고등학교 뒷산인 망월대산(望月臺山), 혹은 증산(甌山)이라 볼 근거는 있다.<sup>68)</sup>

65) 동래기영회, 『동래기영회 150년사』, 1996년, P.36.

66) 이재호 역, 『삼국유사』, 명지대출판부, 1988년, PP.343~344., 부산은행, 『부산, 역사향기를 찾아서』, 효민D&P, 2005년, P.154.

67) 동래와 해운대지 편찬위원회, 『동래와 해운대』, 세명출판사, 1980년, P.22.

68) 동래부산 송상현에 관한 기록인 『충렬지』에 “동래부사 송상현을 내산 밑에 가장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동래와 해운대지 편찬위원회, Ibid., P.22.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장산국은 장산 산록 어딘가에 있던 부족국가로서, 그 세력권이 지금의 칠산동 동래역 일대에까지 미친, 내산국과 같은 나라로 여겨졌을 것이라 볼 수 있다.<sup>69)</sup> 혹 장산국은 『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의 ‘황령산’을 이르는 거칠산의 이름을 따서 ‘거칠산국’으로 바뀌었다가 신라에게 멸망당한 것으로 여겨진다.<sup>70)</sup> 동래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시대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 되어 군이 되어 현재의 동감동 일대는 동평현(東平縣), 현재의 기장은 영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고려시대 현종대에 동래군은 현재의 울산시를 포함한 현으로 재편되었다.

조선시대에 동래온천에 관해 쓰여진 기록은 1481년에 쓰여진 『동국여지승람』에도 나타난다.

“은정. 현의 북쪽 5리에 있다. 그 열은 계란을 익힐 수 있다. 병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서 목욕하면 반드시 낫는다. 신라 때에는 왕이 가끔 여기에 행차했다. 돌판4개를 기둥으로 세웠다. 그 구멍은 아직도 존재한다.”<sup>71)</sup>

이 기록에 따라 동래관청이 있던 현재의 동래구 북산동에서 북서쪽 약 2킬로미터는 현재의 온천장 지점에 해당한다. 당시 동래의 관청에는 온천을 관리하는 전속관리가 한 명 배치되어 있었으며 온천치료를 위하여 오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역마를 제공하고 숙박을 겸하는 역으로 온정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아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건치연혁(健置沿革)’에서는 “동래현은 옛 장산국(古叢山國)이다. 혹 내산국(築山國)이라고도 했다. 신라가 이를 취해 거칠산군(居漆山郡)을 두었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동래(東萊)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2)</sup> 그래서 오늘날 동래온천에 관한 논문이나 책에서는 다케쿠니 도모야스<sup>73)</sup>나 임화순 교수<sup>74)</sup> 등도 “장산국 온정”에 관한 기록이 ‘동래온천’을 이르는 것으로 본다.<sup>75)</sup>

69) 최해군, 『부산향』, 지평, 1992년, P.158.

70) 『東國與地勝覽』(東萊縣篇):“一云築山國大發兵三十人代伽倻國新羅取之置居漆山郡”

71) 竹国友康, Op.cit., P.84. 再引用.

72)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동래현편), 1970년, P.350.

73) 竹国友康, Ibid., P.83.

74) 임화순, Op.cit., P.253.

혹 장산이 해운대 쪽에 있으니 “장산국 온정”이 '해운대 온천'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해운대 온천은 위의 동래온천에 대한 기록과 달리 진성여왕이 애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sup>76)</sup>

동래에 관련된 시로서 남아있는 것은 공민왕 15년 정추가 동래에 관해 지은 ‘동래회고시’가 남아있다. 이 중에 해운대, 겸효대, 소하정, 정과정 등 여러 가지 풍물과 전설을 시로 표현 했다. 충선왕 때 벼슬을 지낸 박효수도 동국여지승람에서 동래온천에 관한 시문을 남기고 있다. 박효수는 당시 지조가 있던 인물로서 유명했고 그의 시문을 통해서 그 당시 동래온천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다.

시의 앞머리에는 “계곡 속 깊은 곳에 돌로 된 독이 놓여져 있고, 흐리지 않고 깨끗한 물이 가득 흐르고 있구나 …” 계곡의 안 깊은 곳에 노천온천이 있었던 것 같다. 시 가운데에는 노천탕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박효수는 여기서 목욕하면서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져 마음을 뺏긴 것 같은 꿈속의 낙토와 같은 자연 그대로의 세계로구나”라고 읊조렸다.

당시의 동래온천은 고려 사람들에게 하나의 안식처이고, 몸과 마음의 병을 동시에 치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sup>77)</sup>

## (2)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래온천에 관해서 총 6번의 기록이 나와 있다. 대부분의 기록은 대마도주가 동래 온천에 와서 목욕을 했다는 내용들이다. 그 중 하나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성종조에 대마도주 종정국이 특사를 보내 토산물 보내다. 다만 폐읍은 사자(使者)에게 죄 줄 수 없는 형편일 뿐입니다. 동래의 온천은 바라보기만 하여도 병이 벌써 낫는 듯합니다. 3,50일이 아니면 낫기가 어려운 증세인데, 조명(詔命)을 내려 승낙 해주셨으니, 더할 수 없는 다행입니다. 대도(大刀) 2파(把), 연(練) 2필(匹), 청모마(靑毛馬) 1필을 진상(進上)합니다.”<sup>78)</sup>

75) 박화진,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경대 출판부, 2003년, P.25

76) 김용욱, 『부산의 역사와 정신(2)』, 전망, 2001년, P.555., 해운대구청, 『해운대』, 1996년, P.39.

77) 부산경남역사연구소편, 『부산의 역사』, 늘함께, 1999년, P.253.

78) 『조선왕조실록 11집』, P.666.

이처럼 동래 온천은 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다고 익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22년(1440년), 단종 원년(1453년)에도 동래온천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특히 동래온천은 교역을 하러 부산을 방문한 왜인들, 그 중에서도 대마도의 도주 종(宗)씨 등의 친선외교 장소가 되어 교류가 성행했다.

이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밀양 동남쪽이 동래이며, 동래는 곧 동남 바닷가여서 왜국서 한국에 상륙하는 첫 경계이다. 임진년 전부터 고을 남쪽 바닷가에다가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둘레 수십 리에다 나무 울타리를 쳐서 한계를 정하였고, 군졸을 두어서 지키게 하고 한국 사람이 드나들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금하였다.

해마다 대마도(對馬島)사람이 도주(島主)의 문서를 받고, 왜인 수백 명을 인솔하여 와서 관(館)에 머문다. 한국조정에서는 경상도에서 바치는 세조(稅租) 중에서 약간을 떼어 절반은 관에 머무는 왜인에게 주어서 도주에게 보내게 하고, 남은 반은 조금씩 조금씩 주어서 그들이 공동으로 쓰게 한다. 그들은 하는 일이 없고 다만 피차간에 왕래하는 서신과 물자를 교역하는 일을 관장할 뿐이다. 그리고 교역한 물자의 값을 바로 주지 못하고 분할하여 다음 해로 미뤄 갚기를 약속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잡혔다고 한다. 79)

그 후에도, 삼포에서의 통행이 활발히 계속 되었지만 1510년 조선에서의 권익 확대를 원하는 왜인들이 제포(乃而浦)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른바 ‘삼포왜란’이다.

폭동은 조선군에 의해 바로 진압되었지만 이러한 삼포왜란 후에, 조선정부와 대마도주 종씨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수복 되었다. 하지만 왜인들의 거류와 통행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개항장은 부산포만으로 제한되었고 1547년 이후 동래온천은 왜인들에게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먼 지역이 되어 버렸다.

---

79) 이중환,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9년, PP.65~66.

## 제4절. 일본인과 동래온천

선조 34년(1601년)에 이르러 절영도(絶影島)에 임시 <왜관>을 설치하였다. 이어 1607년 선조 40년에는 지금의 수정동에 <두모포 왜관>을 설치하였다. <두모포 왜관>은 그 후 선박출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숙종 4년(1678년)에 지금의 용두산 부근인 초량왜관으로 옮겼다. 부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초량왜관은 10만평 부지였다.

이후에, 왜관은 옮기지 않고 일본인 거주 지역은 한군데로 제한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오는 사절단의 인원수는 한 번에 대략 40명부터 50명으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에는 서울로 가는 일본 사신들의 상경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신의 응접은 모두 부산 왜관에서 행해졌다.<sup>80)</sup> 초량왜관에서는, 사람의 출입은 규제되고 있었다.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져 한국인의 상인 또는 관인마저도, 소정의 통행례에 따라 관내에의 출입이 허가되었다.<sup>81)</sup>

그러나 왜관의 일본사람들은 밀매매, 성매매, 탈주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왜관 근처에 있는 마을을 빈번하게 출입 하고 있었다. 이때에, 한국에 곤약, 두부, 누룩, 술등이 반입되었다.<sup>82)</sup> 하지만 일본인이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의 사이에 말썽을 일으켜 한국 측은 조약과 법령을 강화하고 일본인들의 왜관 밖 출입을 한층 엄격하게 제한했다.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인이 동래온천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초량왜관은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폐쇄될 때까지 198년 동안 유지 되었지만 일본인들은 동래온천에는 갈 수 없었다.

고종 13년인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체결로 조선이 쇄국(鎖國)의 빗장을 풀고 항구를 개방하게 되면서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서서히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음 해인 1877년 1월 30일에는 「부산구조계조약(釜山租界條約)」가 체결되어 종래의 왜관 안에 일본 조계(租界;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가 생기고 외교관(관리관)이 상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왜관 내에는 영구조차권, 가옥건축임차권이 설정되었으며, 영해의 항행측량권, 통상권 등을 가지게 되었다.<sup>83)</sup> 이로써 일본인들은 부산항을 자유롭게

80) 上垣外憲一, 『雨森芳洲』, 中公新書, 1989年, P.89.

81) 上垣外憲一, Ibid., P.90.

82) 이영, 김동철, 이근우, 『전근대한일관계사』, 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99년. P.357.



드나들게 되고, 장사도 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일본 돈도 쓸 수 있게 되었다.

고종 16년(1879년) 일본 공사(公使)가 부산항의 측량을 위해 군함을 타고 입항했다. 이때 군함에 타고 있던 일본 사관과 수병(水兵)들은 조약상 자유왕래가 허락되어 있으므로 배에서 내려 동래온천으로 가고자 했다. 그들이 동래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 관원들이 통과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들과 관원들 그리고 동래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다. 이러한 충돌이 생긴 이유는 한국은 병자수호조약 체결 후 오래지 않아 제정한 ‘일본인통행수칙’에서 일본인들이 동래를 왕래하더라도 관아(官衙 : 관공서)나 민가에는 들어갈 수 없게 규정하고 있었다. 조약상으로는 일본인의 자유왕래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이때까지는 실제적인 자유왕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들은 동래온천에의 출입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고종 19년(1882년)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을 체결하여 새로 통행구역을 규정하고, 7월17일에는 의정조선국한행이정약조(議訂朝鮮國閑行里程約條)에 따라 기장, 김해, 양산을 비롯한 동래온천의 통행권을 얻었다.

그러나 1882년 7월23일 임오군란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변화 되었다. 임오군란 소식이 8월1일 저녁에야 부산에 있는 일본조계지의 일본인들에게 알려졌다. 임오군란의 배일적(排日的) 성격에 일본인들은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8월 3일 일본 영사는 부산의 일본인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경고를 발령 하였고, 8월 5일에는 일본 군함이 일본조계를 경계하였다. 임오군란으로 일본인들의 동래온천장에서의 목욕이 고종20년 (1883년)까지 금지되었고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다시 금지조치가 행해졌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은 1885년에 이르러서야 온천장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84) 일본사람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동래온천의 자유왕래가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것은 단순히 조선 문화를 맛보는 차원을 넘어 장차 동래온천에 크나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계기를 낳았다.

---

83)김용욱,Op.cit.,P.552.

84)김용욱,Op.cit.,P.553.

## 제5절.개항기의 동래온천

### (1)강필리의 온천비

신라시대로부터 솟아나고 있던 자연용출의 온천인 동래온천은 오랜 사용으로 물이 마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숙종시대에서 영조시대 사이에 동래온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보수하여, 조선조 숙종 17년(1691년)에 옛날의 샘 근처를 파서 새로운 천원(泉源)을 얻고 9칸(일설에는 7칸, 행낭 5칸)의 욕사(浴舍)를 건립하였다.

이후 1729년과 1740년에도 동래부사(府使)들이 계속 온천시설을 고치고 확장하였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온천의 대대적인 정비와 보수에 임하였다. 이 공사는 숙종 17년 7월 상순에 착공하여 8월 24일에 돌기둥을 세웠고, 9월 7일에 상량하였다. 그 후 영조 42년에 9칸의 대문을 세우고 그 안에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를 세웠다. 85)

『동래부지(東萊府誌)』 산천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정은 동래읍의 북쪽 6리에 있는데 금정산에서 발원한다. 탕에 들어가 목욕하면 온갖 질병이 낫는다. 옛날에 지은 건물은 낡았고 돌로 만든 두 개의 탕도 막혀버렸다. 이에 강필리 공이 온정을 다스려서 9칸으로 고쳐 지었는데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였고, 상쾌하고 화려하기가 마치 꿩이 나는 듯 으리으리하였다. 지키는 집을 짓고 안에는 비를 세웠다 ...”

이때부터 동래온천의 역사에서 공중목욕탕의 기원이 되는 남녀 별탕제가 시행되었다. 지금은 남탕(男湯) 석조(石槽) 하나와 돌기둥 6개가 남아있고, 여탕(女湯)의 석조는 후에 동래 관아를 짓기 위하여 주춧돌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sup>86)</sup> 그때부터 동래온천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오늘날 공중 목욕탕식의 남녀욕탕 구분이 본격화되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85) 이 비는 지금도 온천동 녹천호텔 옆 빈 터에 남아있으며 부산시가 1972년 문화재 기념물 제14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86)김용욱,Op.cit. 2001, P.549.

## (2)일본인의 경영

일제 강점 당시 일본인들은 동래온천을 ‘동래 온천’, 혹은 ‘금정리 온천’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다. 당시의 온천은 뜨거웠기 때문에, 탕에 목욕물을 부어 차가워지기를 기다려야 했을 정도다.

일본인의 자유통행권 확대가 문서상으로 보장된 1882년, 일본영사관은 동래부와 교섭하여 동래온천의 공중욕탕의 여탕을 빌려서, 거류지의 일본인들도 동래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래온천에는 옛날부터 공중목욕탕이 한 동 있어 그것을 남녀별로 구별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여탕 쪽이 일본인 전용으로 배정되자, 한국인들은 남탕의 욕실을 시간을 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되었다.<sup>87)</sup>

그 후에, 1897년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 교섭하여 온천장의 일부를 부대시설과 함께 10년 계약으로<sup>88)</sup>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회가 사용해도 좋다는 개발영업권을 얻었다. 빌리는 값은 1년에 25엔 이었다. 그로부터, 일본인들은 새로운 온천여관을 독자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래온천 최초의 일본인 여관인 ‘핫토시여관’이 개업하고, 다음에는 ‘광월루(光月樓)’, ‘봉래관(蓬萊館)’이 개업 했다. 특히 봉래관은 현재의 농심호텔 부지에 있었는데 “조선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온천시설과 정원 등이 뛰어나 “동양 제일”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큰 여관이였다. 당시 봉래관의 사진을 보면 연못이 있고, 여관의 대지는 넓고 객실은 36개를 완비하였고 그 중에서 6개의 방은 온돌방 이었다.

1910년 11월, 부산진역에서 동래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잇는 경편철도가 개통 되었다.<sup>89)</sup> 그 후 1915년 10월 에는 부산의 일본인가와 동래사이에 전차가 연결 되었다. 이즈음이 되면 동래온천은 동래부의 온천장이라고만 할 수 없고 일본인들의 온천지로서 성장해 가는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

87) 竹国友康,Op.cit., P.102.

88) 김용욱,Op.cit.,P.554.

89) 竹国友康,Ibid., P.111.

## 제 3 장. 동래온천의 근대화

### 제1절. 일본인의 도항과 근대화

한국으로의 도항자가 급증한 것은 일제가 “보호국”이 된 나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했기 때문이었다. 농업이라든가 상업 등 생계대책을 세운 후 도항하는 사람들은 청일전쟁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4년, 일제는 한반도 지배를 위해서는 일본인의 한국이주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일본인으로 하여금 되도록 속히 한국 땅에 이식시키는 일, 이것은 참으로 영원한 계책이다. 한국 땅 이식사업은 한반도를 개척하는 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이다. 한국 땅으로 이식은 국부의 증진도모에 크게 족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이권을 차지하는 데에도 또한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sup>90)</sup>

러일전쟁 후 일본의 대외확장 정책은 홋카이도와 대만 뿐 아니라 한국과 만주를 목표로 삼았다. 한국에서는 1906년에 한국통감부 개청에 이어 <남만주 철도주식회사>,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차차 일제는 한국으로의 농업이민을 장려하였고 1906년에는 ‘토지가옥증명규제’에 의해 처음으로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다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이루어지면서 <동양척식회사>는 공식적으로 식민사업 이주민모집을 개시했고, 일제는 일본인 농업이민자에게 토지를 불하해 주기 위해 설립한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워 식민사업을 확대했다.

이러한 식민지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국으로의 도항과 이주자가 급증하였다. 1905년 9월에 취향한 관부연락선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오는 도항자의 총수는 첫해 4개월 간 7,317명 이었지만 다음 해에는 연간 5만 1,583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서서히 증가하여 1910년에는 7만 3,855명으로 늘어났<sup>91)</sup> 일본인 거주자는 1906년에 총수 8만 3,315명에서 1910년에는 17만

90) 朝鮮渡航者便利同22篇, '國論日本人韓國移殖の急' (「内外彙報」, 明治27年 11月 17日)

9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2年, 75項.

1,543명으로 배나 증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불황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1908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인구 증가율이 28.74%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sup>92)</sup>

특히 한국에서도 부산은 1876년의 개항과 더불어 서양문화가 유입되는 창구가 되었다.<sup>93)</sup> 조선시대까지는 대륙으로부터 온 물건이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개항 이후에는 서양의 문화와 물건이 일본에서 부산항에 흘러들어 왔다. <sup>94)</sup>이 새로운 흐름은 한반도 전체에 미쳤다. 부산이 다른 항보다 앞서서 개항한 것도 옛날부터 왜관을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가 있고, 저항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1905년부터 1911년에 걸쳐 부산의 북쪽해안지구 1,2기 공사가 행해짐에 따라,<sup>95)</sup> 1912년 6월 15일에 부산-시모노세키를 잇는 관부연락선의 왕래가 시작되었으며 3,000톤급의 대형선박이 계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1925년에는 해수면을 매립하여 14만 8천 2백 75평까지 부지가 넓어졌다. 육상연계시설은 경부선철도가 개통되어, 한.일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전등가설(1900년), 상수도시설(1902년), 전차운행(1915년) 등의 시가지의 공공시설이 정비되어 초량과 영주동의 가로지 정비사업도 시작되어 도시형성의 기반을 정비했다.

92)朝鮮總督府,Ibid.,164項.

나라	인수
일본인	5 1 만 5, 6 0 1 人
한국인	2 8 1, 5 9 6 人
중국인	3, 8 0 3 人
러시아인	1, 2 9 8 人
미국인	1, 7 4 3 人
영국인	7 3 6 人
독일인	4 9 8 人
기타	7 0 5 人
합계	8 0 6, 9 8 0 人

93)부산항출입 선박 탑승여객국별 (風俗地理、新光社, 1930, P.6 내용 재구성.)

94) 1928년의 부산항출입 선박과 관부연락선 탑승 여객수.

	부산 발착 266,527人
	부산 통과 443,658人
<b>합계</b>	710,185人

95) 차철욱, 「1910년대 부산진 매축과 그 성격」, 부경역사연구소, P.72.

그 당시 부산은 한국에 들어온 여객화물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관문이고, 동시에 만주는 원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열차 운전의 대관문의 하나로서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위치와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sup>96)</sup> 이와 때를 맞추어 부산항은 한반도의 관문일 뿐 아니라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통하는 극동 아시아의 관문으로까지 크게 발돋움하게 되었다. <sup>97)</sup>

1914년 3월1일의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동래부는 동래군으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일대, 즉 동래부 부산면이 부산부로 개편되면서 이사청은 부산부청(釜山府庁)이 되었다. 일제 시대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부산부제가 실시되어, 동래군이 부활하고, 부산지역은 크게 나누어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구성되었다. 부산에 살고 있던 많은 일본인은 예전에 초량왜관이 있던 용두산 근처에 살았다.

그러나 점점 인구가 많아졌으므로 주변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주지역 중 하나가 영도였다. 영도에 이주하러 오는 인구가 늘어나자 (당시 6만인),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도선(渡船)만으로는 불편하게 되었으므로 1931년 3월부터 1934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다리를 완성했다. 그것이 한국 최초의 ‘연륙교(連陸橋)’이고, 다리 가운데가 뒤로 올라가는 ‘도개교(跳開橋)’였던 영도대교다. 1000톤 급까지 통과할 수 있게 설계된 영도대교의 개통식에는 “조선팔도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신기한 다리”를 보려고

96) 『風俗地理』, Op.cit., P.6.

도시이름	거리	소요시간
시모노세키(下関)	1 2 2 리(浬)	8시간(時)
치룽(基隆)	7 2 5 리(浬)	7 2 시간(時)
상하이(上海)	4 9 0 리(浬)	54시간(時)
경성(京城)	4 5 0 킬로미터	1 0 시간(時)
안동(安東)	9 5 0 킬로미터	2 3 시간(時)
평티엔(奉天)	1 2 2 8 킬로미터	2 8 시간(時)
따렌(大連)	1 6 2 5 킬로미터	3 5 시간(時)
파리	1 만 2 7 3 0 킬로미터	1 5 일간(日)

97) 부산항으로부터 내외주요지의 거리와 소요시간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sup>98)</sup> 개통 시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7번, 20분간 들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전 오후 한 번씩만 도개하기로 하였다.

이 움직이는 다리, 영도대교는 “부산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명소가 되어 널리 알려졌다.

## 제2절. 전국의 온천개발 열풍

### (1)각 지방별 유명온천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2년 <일본여행협회>는 경성에 조선 지사를 설립하고 근대적 관광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sup>99)</sup> 즉, 식민지 경영을 위한 철도의 건설과 더불어 한반도 각 지역으로 여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유권과 철도할인권을 판매하거나 관광 지도를 작성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온천관광은 그 대표적인 상품의 하나였다. 조선총독부가 ‘개척사업’의 구상에 온천을 포함시켜 개발한 것은 이를 통해 식민지 경영에 나선 일본인들에게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관광을 통해 식민통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지만, 온천 개발은 단순한 관광여행만이 아니라 군인들의 휴양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근거로 1939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의 취락』에서 전국의 온천지를 상세하게 소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래온천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다른 지역의 온천에 대해서는 1930년경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북부지방은 일본에서 중국대륙으로 가는 중간지점이었으므로 왕래가 많았으며 특히 온천이 몰려있는 평안남도는 철도와 더불어 온천 개발이 행해진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온화온천<sup>100)</sup>은 자동차로 이동하기가 편리하고 여관

98) 이종률, 『부산항이야기』, 해성, 1997, P.121.

99) 문옥표,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 문화』, 소화, 2006년. 참조

100) 온화온천

소개지	평안남도	녕원군	온화면	온양리
-----	------	-----	-----	-----

은 모두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었다. 여관 외에 민박도 있어 약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

중부지방의 온천지로는 온양온천<sup>101)</sup>, 수안보온천<sup>102)</sup>, 그리고 덕산온천이

<b>호수 및 인구</b>	호수 25호, 인구 116명					
<b>교통</b>	<p>평양부터 적천을 지나가서 녕원읍까지는 2등 도로가 있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동차가 운행한다. 개천군우리에서 구장을 지나가서 덕천군 읍내에 통하는 2등 도로에서도 자동차편이 있음. 녕원읍의 등외도로는 말이 왕래한다. 말 빌리는 가격은 1리 50전이다.</p> <p><b>주요지의 교통</b></p> <p>평양에서 녕원읍내까지 : 10리 8정, 순천, 덕천, 맹산 경우, 자동차 이동          개천에서 녕원읍내까지 : 19리, 평북구장, 덕천 경우, 걸어서 이동          덕천에서 녕원읍내까지 : 8리 18정, 걸어서 이동          녕원읍내에서 온천까지 : 25리, 걸어서 이동          가천에서 온천까지 : 18리, 녕원군 소백면 경우, 걸어서 이동</p>					
<b>명승지</b>	온천장 앞에는 온천강의 청류가 있음. 부근 일대는 산악 때문에 시원하고 여름에는 모기가 없음. 피서지에 적합한 곳이다.					
<b>여관</b>	<b>종류</b>	<b>시설</b>		<b>숙박료 (1박 2식)</b>		
<b>여관 및 숙박료</b>	<b>한식</b>	모두 온돌방 단층집이다. 5~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관이 6개 있음. 수요한계는 50명이다.		<b>1등</b>	<b>2등</b>	<b>3등</b>
				80전	70전	30전
	<b>계절</b>	<b>봄</b>	<b>여름</b>	<b>가을</b>	<b>겨울</b>	
	<b>남</b>	325	325	220	322	
	<b>녀</b>	112	42	135	72	
<b>욕객수 3년간평균</b>			<b>한국인</b>	<b>일본인</b>	<b>계</b>	
	<b>호수 인구</b>		22	3	25	
			108	8	116	
<b>계절 온천물 온도</b>	<b>봄</b>		<b>여름</b>	<b>가을</b>	<b>겨울</b>	
	61도		61도	61도	60도	
<b>오락시설</b>	구장으로 사용하면 좋은 곳이 있지만 현재는 사용 안함.					
<b>효능</b>	히스테리, 위병, 신경 쇠약 등.					

101) 온양온천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39輯、生活狀態調査(其六)「朝鮮の聚落」中篇、第五章 温泉部落)

<b>소재지</b>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면 온양리
<b>호수 및 인구</b>	호수 361호, 인구 1,681명
<b>교통</b>	도내교통로 도착지



있었다. 일제는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지의 온천에 관한 교통, 물의 효

	<p>공주: 47.0리, 2엔50전, 소요시간 3시간, 조치원에서 기차 및 자동차          조치원: 30.0리, 1엔3전, 1시간10분, 기차          논산: 85.0리, 2엔40전, 2시간40분, 기차          강경: 92.0리, 2엔55전, 3시간8분, 기차          예산: 17.0리, 0.85전, 56분, 기차          대전: 53.0리, 1엔60전, 2시간8분, 기차          홍성: 30.0리, 1엔50전, 1시간50분, 기차          천안: 10.0리, 50전, 30분, 기차          선장항: 10.4리, 55전, 35분, 기차          32리, 30분 육로</p> <p><b>도외교통로</b></p> <p>경성: 70리, 2엔3전, 3시간, 기차          인천: 83리, 1엔60전, 2시간, 기차          부산: 230리, 6엔3전, 8시간, 기차          평양: 232리, 6엔8전, 8시간, 기차          원산: 206리, 5엔43전, 12시간, 기차          신의주: 379리, 9엔73전, 10시간, 기차          대구: 152리, 4엔8전, 5시간, 기차</p>						
<b>명승지</b>	청일전쟁기념지, 아산, 이순신 무덤, 이순신의 유물(큰 칼 등), 김옥균의 무덤, 홍공제(洪公堤), 인옥상(寅玉狀)						
<b>여관 및 숙박료</b>	<b>종류</b>	<b>여관이름</b>	<b>숙박료(1박2식)</b>				
			<b>특등</b>	<b>1등</b>	<b>2등</b>	<b>3등</b>	<b>하숙</b>
	<b>일식</b>	온양관	6엔	4엔50전	3엔50전	3엔	-
		야마구치여관	5엔	4엔	3엔	-	1달25엔
		이시다여관	4엔	3엔50전	3엔	2엔50전	1달25엔
코우요우관		4엔50전	3엔50전	3엔	-	1달25엔	
<b>한식</b>		<b>특등</b>	<b>보통</b>	<b>하숙</b>			
	대성여관	1엔	80전	-			
	관선여관	1엔	70전	12엔			
	신창여관	1엔	70전	12엔			
	천일여관	80전	60전	-			
<b>욕객수 3년간평균</b>		<b>봄</b>	<b>여름</b>	<b>가을</b>	<b>겨울</b>		
	<b>남</b>	22,852	19,253	21,354	20,052		
	<b>녀</b>	19,271	12,851	15,532	11,528		
<b>호수 및 인구의 내용</b>		<b>한국인</b>	<b>일본인</b>	<b>외국인</b>	<b>계</b>		
	<b>호수 인구</b>	239	82	40	261		
<b>온천온도</b>	최고 51도, 최저 40도						

능, 여관, 특색 등을 자세히 관광지도 안에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유명한 온천이 있던 지역이 대전 근처였다. 대전은 일제 시대 때 경부선이 생긴 이래로 호남선과의 분기점으로서 급속도로 비약적 발전을 한 지역이다. 당시 판매되던 관광지도서에는 “대전은 충청도청소재지로서 정치 경제 교통의 중요지 및 공업지로서의 발전은 무한히 약속된 것이다”라고 하

<b>천질</b>	탄산나트륨 0.1041, 탄산칼륨 0.0085, 마그네슘 흔적, 암모늄 흔적, 식염 0.0280, 황산 미량, 산화철 0.0030, 인산흔적, 석탄 미량, 반결합탄산 0.0458
<b>오락시설</b>	파칭코2, 테니스코트2, 라디오(온양관)경성, 나고야 청취 가능

102) 수안보온천(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39輯, 生活狀態調査(其六), 朝鮮の聚落, 中篇, 第五章溫泉聚落)

<b>소재지</b>	충청북도 귀산군 상모면 온천리						
<b>호수 및 인구</b>	호수 251호, 인구 1,221명						
<b>교통</b>	<b>도내주요지</b> 충청: 2등 및 3등 도로, 기차와 자동차를 이용해서 5엔30전, 20리 충주: 1등 도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1엔50전, 5리 귀산: 2등 도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2엔90전, 9리 썸						
<b>명승지</b>	미륵석불, 석구, 5층탑, 이대석불, 백계호, 수옥호, 조령제일 관문, 조령제삼과문, 탄금대						
<b>여관 및 숙박료</b>	<b>종류</b>	<b>여관이름</b>	<b>숙박료(1박2식)</b>				
			<b>특등</b>	<b>1등</b>	<b>2등</b>	<b>3등</b>	<b>4등</b>
	<b>일식</b>	후타바여관 우치카와여관	3엔50전 3엔50전	3엔 3엔	2엔50전 2엔50전	2엔 2엔	1엔50전 1엔50전
<b>한식</b>	한식숙박시설 11호 있음	숙박료는 징수하지 않음. 1식 20전~25전					
<b>욕객수 3년간평균</b>		<b>봄</b>	<b>여름</b>	<b>가을</b>	<b>겨울</b>		
	<b>남</b>	7,219	4,777	4,944	5,212		
	<b>녀</b>	4,814	3,852	3,963	3,876		
<b>호수 및 인구의 내용</b>		<b>한국인</b>	<b>일본인</b>	<b>외국인</b>	<b>계</b>		
	<b>호수 인구</b>	238 1,185	10 29	3 7	251 1,221		
<b>온천온도</b>	용출온도 평균 섭씨 45.5도						
<b>천질</b>	단순탄산 알칼리성						
<b>효능</b>	류마티즘, 신경통, 부인병, 피부병						
<b>오락시설</b>	학교 안에 학교소유물 테니스코트 하나 있음.						

며 대전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문장이 있다.

남부지방은 일본군의 목적인 대륙 진출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되는 곳이면서도 관광지로서 적극적으로 홍보 되었다. 부산에서 만주를 잇는 경부철도와 부산항이 있어 일찍부터 도시개발이 시작되었고, 그와 더불어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 경주, 마산, 진해의 역사, 명승지, 교통 및 숙박 등 관광정보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남부지방의 온천지로서는 해운대온천이<sup>103)</sup> 있다.

103) 해운대온천(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39輯,生活狀態調査(其六),朝鮮の聚落,中篇,第五章 温泉部落

소재지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중리							
교통	해운대온천은 부산부에서 동북방 4리, 동래읍내에서 동2리에 있음. 도로는 평탄한 길이고 마차의 왕래가 자유롭다. 정기합승 자동차가 있으며 소요시간은 동래읍내에서 30분, 부산역에서 50분이다.							
명승지	해운대, 좌수영, 양운폭 (養雲瀑) 등							
여관 및 숙박료	종류	여관이름	숙박료(1박2식)					하숙 1개월(엔)
			특등	1등	2등	3등	4등	
	일식	아사히여관	5엔	3엔50전	3엔	2엔50전	-	35,30,25 20,17,15
		토시미즈여관	-	3엔	2엔50전	2엔	1엔50전	
한식	추월관	-	1엔	80전	60전	-	18,14	
	동래관	-	1엔	80전	60전	-	18,14	
호수 및 인구의 내용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219	65	-	284			
욕객수 3년간평균		봄	여름	가을	겨울			
	남 녀	5,148 4,944	5,897 5,481	5,645 5,201	4,258 3,571			
온천온도 4개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최고 43도 최저 41도	최고 45도 최저 43도	최고 44도 최저 42도	최고 42도 최저 40도				
천질	단순 식염천으로서 청정, 무색무취, 산미를 띄워 화학반응은 상온에는 중성, 끓은 후에는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효능	음용	위액의 분비를 왕성케 하고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시켜 이노상의 효능이 현저하다.						
	욕용	영양불량, 골수병, 비장 및 간장의 평창, 혈액순환계통의 악순환, 습관성 유산, 통풍, 류마티즘, 일반적 비만 당뇨병, 피부병, 창상 등에 효능이 있음.						
	증기흡입	만성기관지카타르, 만성기관지염, 후두카타르, 폐렴카타르후의 2차적						

해운대는 1914년 동래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 될 때 까지 교통편이 불편하여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도로가 개통되어 하루 4번 왕복하는 자동차와 부산에서 출항하는 유선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운대 온천이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래와 비교해 온천지로서는 규모가 작았으므로 오락시설은 없었던듯하다. 한국인이 경영한 아키즈키(秋月)관은 온돌방과 일본식 방으로 구별되어 있었고, 일본식방 4개, 온돌방 6개가 있었다. 일본식방의 가격이 다른 여관과 비교해 저렴했으므로 일본인이 많이 이용 했으리라 생각되며, 민박을 포함해 최대 숙박인원 수는 250명이었다.

## (2) 온천지의 근대문화

전국의 온천지는 문명의 상징인 철도의 발달과 함께 점점 더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어갔다. 철도를 이용하여 대도시에서 온천장으로 가는 여행길은 한국 국내에 새로운 대중문화로서의 관광문화를 퍼뜨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온양온천과 덕산온천에는 경남철도가 개통되어 있었으므로 철도를 이용해 온천장에 갈 수 있었다. 한편, 수안보온천에는 주변에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원역에서 충북선을 타고 충주역에서 내렸다가 자동차를 갈아타고 가야 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온천에 가는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천으로 가는 기차의 값을 할인하고 있었다. 온양온천에는 당국선(當局線) 평일권이 30% 할인되고, 경부선 토요일권, 일요일권이 50% 할인되었다. 그리고 수안보온천은 당국선(當局線) 30% 할인, 충북선 50% 할인, 충주역에서 자동차를 타면 왕복 1엔 50전이였다. 철도를 이용해 대전 옆에 있는 유성온천장<sup>104)</sup>에 가는 욕객들에게도 할인제도가 시행되어 국선은 30%

	병상, 경결증
오락시설	없음

104) 유성온천장(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39輯, 生活狀態調査(其六)「朝鮮の聚落」中篇』, 第五章 温泉部落)

소재지	충청남도 대전군 유성면
호수 및 인구	호수 185호, 인구 798명
교통	도내교통로 대전: 2리18조, 50전, 지동차 30분, 운전회수 6번 공주: 7리, 2엔, 지동차 2시간, 운전회수 3번

할인을 받았다. 역에는 자동차가 있어 왕복 80전의 가격에 대전역과 온천장을 오고갔다. 철도할인 구간은 김천과 옥천구간, 신탄진과 성환 구간, 두계리와 각 역 및 대구, 왜관, 수원, 용산, 경성, 상인천, 인천, 김제, 정읍, 목포, 군산, 전주역 구간의 온천장까지 왕복이었다.

철도와 함께 온천장을 안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나서서 갖가지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그 책자에는 기차를 이용해 유적을 돌아보는 코스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중부권에서는 호남선을 이용해 강경과 부여 백제의 유적, 연산의 개태사, 그리고 논산의 반월성 등을 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책자 외에도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관광 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했다. 관광지도는 일본인들을 위해 전문(全文)을 일본어로 쓰고 일본인의 취향에 맞추어 한국의 관광명소와 계절의 경치 등을 소개하고 해설했다. 또 지도에는 각 지방의 중소기업과 여관, 택시, 백화점 등의 광고와 함께 교통기관의 시각표, 관공서 안내, 환전소 등의 위치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관광지도가 아니라 마을안내도와 생

	조치원: 7리 동면: 3리, 75전, 자동차 45분, 운행회수 1번							
여관 및숙박료	종류	여관이름	숙박료(1박2식)					하숙
			특등	1등	2등	3등		
	일식	호우메이관	6엔50전	4엔50전	3엔50전	-	-	
		쇼우리관	5엔	3엔50전	3엔	2엔50전	1달35엔~40엔	
		토기와관	2엔50전	2엔	1엔50전	-	1달35엔~40엔	
		스기야마여관	2엔50전	2엔	1엔50전	-	1달35엔~40엔	
한식		특등	상등		보통			
	평양여관	2엔	1엔50전		1엔			
	정흥여관	2엔	1엔50전		1엔			
	박병기여관	2엔	1엔50전		1엔			
		만년여관	2엔	1엔50전		1엔		
호수 및 인구의 내용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144 632	33 139	8 27	185 798			
온천온도	최고 51도, 최저 48도							
천질	칼슘 0.0242그램, 마그네슘 흔적, 칼륨 0.0103그램, 나트륨 0.0061그램, 철 0.0125그램, 황산 0.0103그램, 결합탄산 0.0270그램							
효능	류마티즘, 당뇨병, 통풍, 피부병, 빈혈, 만성위장카타르, 간장염, 심장병, 월경이상, 자궁 내방염, 신경통, 히스테리, 등							
오락시설	없음							

활정보책자의 기능을 겸하여, 이 지도만 가지면 아무리 낯선 지방에서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북부지방의 온화온천을 예로 들면 이곳은 비교적 작은 마을이지만 의학생 한 명, 약을 파는 도매업자가 한 명 있어 의료진을 갖춘 셈이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휴양에 동원되는 갖가지 스포츠와 오락 문화였다. 전국적으로 오락시설을 가진 온천지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북부지방의 심천온천에는 테니스 코트가 있었다. 이는 일본 온천지에 테니스 코트와 탁구대를 갖추어 휴양과 운동을 겸하는 문화가 들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동시에 온천의 여관은 다다미방과 온돌방 등 숙박시설과 함께 파칭코와 라디오 등 게임문화와 매스미디어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온천관광에는 철도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홍보가 동원되었고, 스포츠와 오락문화가 총동원되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문물로서, 온천지로의 여행은 일본인 뿐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근대문물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제3절. 동래온천의 새로운 경영

#### (1)일본인의 온천 경영

예전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온천동에는 ‘온정원(溫井院)’이라 하여 국영여관<sup>105)</sup>에 해당하는 원(院)만이 있었을 뿐 다른 마을은 형성돼 있지 않았다. 지역상으로는 동래부 서면의 산저리(山底里 : 속칭 차밭골)가 일부를 차지하였고 다른 일부는 북면 장전리라 불렀으나 호수가 30여 호에 불과하여 하나의 행정단위는 되지 못했다.<sup>106)</sup> 1989년만 해도 불과 30여 가구가 사는, ‘금산부락’, 또는 ‘금정리’라 불리던 마을이었다.

이곳이 ‘온천리’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10년에 이르러 산저리와 장전리가 통합되면서부터였다. 1910년 이후 교통이 편리해지고 도시개발이 진척되

105) 동래와 해운대지 편집위원회, 『동래와 해운대』, 세명출판사, 1980, P.277.

106) 부산직할시, 『부산의 내력』, 1989, P.67.

어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차차 일본식 여관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하게 되자 일본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대식 시설을 갖춘 동래온천이 일본인과 한국인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었다. 당시 동래온천장에 있는 일본식 숙박시설은 9개소, 한국식 숙박시설은 4개소였고, 중심지에 자연석으로 만든 공중목욕장이 2개소 있었다. 목욕장에 대해서는 그 넓이가 3평, 욕조 깊이가 1척이었으며, 당시의 온천수 용출량은 하루에 1,350석(1석은 10말) 가량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공중목욕장과 함께 가족탕은 <조선총독부 철도국>과 <동래면>이 관리, 경영하였고, 여관 등의 숙박시설의 목욕탕은 업자가 각자 맡아서 관리, 경영하고 있었다. 여관 요금은 1박 2식을 기준으로 특실 7엔부터 4등 80전까지 받았다.

여관의 숙박요금은 당시로선 매우 비싼 편이었으므로 일반인들이 동래온천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출혈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일본인들로서는 큐슈의 벳부에 가지 않아도 즐길 곳이 있다며 매우 기꺼워했다.

동래온천의 이용객 수는 한 해 평균 6만 3,000여명에 달했다. 그 이용객 수만으로도 당시 동래온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당시 동래 온천을 방문한 이용객의 3년 간 평균치이다.<sup>107)</sup>

	봄	여름	가을	겨울
<b>욕객수</b>	남 10,427人 녀 7,869人	남 7,866人 녀 7,105人	남 9,737人 녀 7,271人	남 10,738人 녀 6,021人

1910年11月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는 부산진에서 동래남문까지 경편철도를 개통하였다. 원래 이 공사는 1897년 설립된 <부산경편철도주식회사>가 1909년 대한제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착수했던 것인데 개통 직전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에서 이를 인수했던 것이다. 다시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는 1915년 1월 31일 총독부로부터 시가지의 전철 부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 10월31일에 부산진과 동래온천장의 구간을 오가는 전철을 개통하고 여관과 요리점 등도 설립했다.

이때의 전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운행했으

<sup>107)</sup>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39輯、生活狀態調査(其六)「朝鮮の聚落」中篇』, PP.406~411.

며, 소요시간은 48분으로 지금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신속한 편이었다. 운행 횟수도 잦아서 하루에 15번 내지 16번을 오가며 승객을 실어 날랐다. 특히 온천장의 종점은 현재의 온천장 1구 교차로에 있는 현대병원 자리로, 수다한 여관이 밀집한 온천장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어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는 1916년 8월 공사를 낙찰 받아 2개월 후인 10월에 대욕장을 신설했다. 이처럼 전철과 대욕장 시설을 동시에 갖추게 되자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는 ‘온천 입욕권’과 ‘전철 왕복할인권’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상술을 선보였다. 그러한 상술은 입욕객 수를 더 늘어나게 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철뿐만 아니라 온천방면으로 1등 도로, 1915년 동래온천장선과 양산동래선, 동래남면선, 기장대변선등 철도 노선이 각각 개통되어 사람이나 화물이 온천장으로 드나드는 일이 아주 편하게 되었다.

그러자 1914년에는 ‘조선 경관정(京阪亭)여관’, 1915년에는 ‘나루토여관(鳴戶旅館)’ 등이 더 들어섰다. ‘나루토여관’은 원래 부산역 앞에 본사를 두어 이름을 얻은 여관으로, 온천장에 들어선 여관은 객실 14실과 욕실 3실을 갖추고 있었다. 1922년에는 <만주철도주식회사>가 ‘만철호텔’과 ‘동래호텔’<sup>108)</sup>을 세웠다.

이 시기에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와 <만주철도주식회사>는 일종의 제휴 관계에 있었으므로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욕장은 <만주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와 온천을 동시에 묶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설령 먼 거리에서 오는 여행객들이라도 온천장 출입은 훨씬 편하게 되었다.

이어 1930부터 1932년까지는 온천천의 제방공사가 완료되어 동래온천장은 더욱 온천마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1933년 7월에는 ‘온천장 배탕권(配湯券)’을 통일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을 완비하였고, 동부간선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온천장 개수공사가 끝났으며, 세병교가 개통되는 등 이른바 “5개 사업”이 완수되었다.

동래온천은 개발 초기부터 원천(源泉)과 공중목욕탕을 중심으로 대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점, 상점이 세워지고, 다시 그 주위에 소규모 여관들이 들어서고, 가장 외곽지에 호화로운 별장들이 늘어선 “불야성”이 되어갔다. 즉, 1907년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6호 밖에 없던 동래 온천장은 1936년에 이르

---

108) 나루토(鳴戶)여관의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 현재의 위치는 ‘온천 월드호텔’ 후방에 있는 ‘만만호텔’ 자리임.



리 무려 90호로 증가했고, 차차 일본인 자본가들이 경쟁적으로 여관과 별장, 요정을 세우면서 근대적 리조트지로 발전해갔다.

여기서 위락시설의 대표적인 옥호(屋號)들을 들어보면, 온천장에서 일본인들이 경영한 여관으로는 ‘부민관’, ‘아라이여관’, ‘동래관’, ‘와키야시즈노야(脇屋静の屋)’, ‘오오이케여관(大池旅館)’, ‘봉래관’ 등이 있었으며, 별장으로는 ‘타카세(高瀬)’, ‘하자마(迫間)(현 동래별장)’, ‘오오이케(大池)’, ‘우에다(上田)’, ‘아쿠가와(介川)’ 등이 있었다. 기생들이 일하는 요정 또한 번성하여 ‘오이시로(大石楼)’, ‘사에키(佐伯)’, ‘나루토지점(鳴戸支店)’, ‘마쓰바(松葉)’ 등에서 50명 이상의 일본인 게이샤들이 활동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다음은 1930년경의 동래온천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b>소재지</b>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온천리							
<b>호수 및 인구</b>	호수 382호, 인구 1,831명							
<b>교통</b>	<p><b>도내 교통로</b></p> <p>부산 : 부산역 기준 1등도로 이정(里程) 30리 20정. 전차, 자동차편이 있다. 전차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18분 마다 발착한다. 요금은 편도 25전, 소요시간 50분, 자동차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시간마다 발착한다. 요금은 편도 50전, 소요시간 30분이다.</p> <p>양산 : 양산읍내 기준 1등도로 이정 5리, 자동차편이 있다. 하루에 2번 발착하며, 소요시간은 40분, 요금은 편도 1엔이다.</p> <p>울산 : 울산읍내 기준 2등도로 이정 12리, 자동차편이 있다. 하루에 5번 발착하며, 소요시간은 2시간, 요금은 3엔 50전이다.</p> <p><b>도의 교통로</b></p> <p>경주 : 경주불국사 기준 1등도로 이정 18리, 자동차편이 있다. 하루에 한 번 발착한다. 소요시간은 3시간, 요금은 4엔 50전이다.</p>							
<b>명승지</b>	동래성, 종공단, 안락서원, 범어사, 정병다리 등							
<b>여관</b>	<b>종류</b>	<b>여관명</b>	<b>숙박료 (1박 2식) (엔)</b>					<b>하숙 1개월</b>
<b>여관 및 숙박료</b>	<b>일식</b>	봉래관	<b>특등</b>	<b>1등</b>	<b>2등</b>	<b>3등</b>	<b>4등</b>	
			7. 00	5. 50	4. 50	3. 00	-	50엔
			나루토관	7. 00	5. 50	4. 50	3. 00	-
		사쿠라이관	7. 00	5. 50	4. 50	3. 00	-	50엔

		아라이관	7. 0 0	5. 5 0	4. 5 0	3. 0 0	-	5 0 엔
		동래호텔	7. 0 0	5. 5 0	4. 5 0	3. 0 0	-	5 0 엔
		시즈노야	7. 0 0	5. 5 0	4. 5 0	3. 0 0	-	5 0 엔
		마츠바야	7. 0 0	5. 5 0	4. 5 0	3. 0 0	-	5 0 엔
		야마구치야	7. 0 0	5. 5 0	4. 5 0	3. 0 0	-	5 0 엔
	<b>한국 식</b>	금천관	2. 4 0	2. 0 0	1. 6 0	1. 2 0	0. 8 0	2 5 엔
		계산관	2. 4 0	2. 0 0	1. 6 0	1. 2 0	0. 8 0	2 5 엔
		일신관	2. 4 0	2. 0 0	1. 6 0	1. 2 0	0. 8 0	2 5 엔
		명월관	2. 4 0	2. 0 0	1. 6 0	1. 2 0	0. 8 0	2 5 엔
<b>종류</b>	<b>평수 (평합)</b>	<b>깊이 (촌)</b>	<b>욕조수</b>			<b>구조</b>	<b>관리소</b>	
공중욕장	3. 0	1. 8	2			자연석조	철도국경영	
공중욕장	2. 2	2. 5	2			자연석조	철도구경영	
공중욕장	3. 0	2. 1	2			자연석조	철도구경영	
가족탕	0. 4	2. 1	2			자연석조	동래면경영	
여관내탕	1. 5	2. 3	2			자연석조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1. 2	2. 3	1			기와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0. 8	2. 3	3			기와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0. 6	2. 3	2			시멘트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0. 5	2. 0	2			자연석조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1. 0	2. 2	1			기와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0. 7	2. 2	1			기와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0. 8	2. 0	2			기와	여관업자경영 일반객용	
여관내탕	1. 0	2. 5	2			자연석조	여관업자경영 가족용	
여관내탕	1. 0	2. 1	1			기와	여관업자경영 가족용	
여관내탕	0. 7	2. 1	3			기와	여관업자경영 가족용	
<b>욕객수</b>	<b>남</b>	<b>봄</b>	<b>여름</b>		<b>가을</b>	<b>겨울</b>		
<b>3년간평균</b>		10,427명	7,866명		9,737명	10,738명		

	녀	7,859명	7,105명	7,271명	6,021명
호수 및 인구	호수 인구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계
		297호	87호	1호	382호
		1,448명	381명	2명	1,831명
온천온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최고 44.8도	최고 45.1도	최고 44.8도	최고 44.5도	
	최저 44.5도	최저 45도	최저 44.6도	최저 44.3도	
오락시설	파칭코 2, 라디오(동경,나고야,경성방송 청취 가능) 2대,테니스 코트 1개				
용출량	1,350석/1일, 음용가능.				
효능	만성위장카타르, 소화불량, 변비, 치질, 류마티즘, 피부제병 등				

동래온천장의 여관 중에서도 ‘하자마’ 별장은 동래 온천 역사를 말하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마 호타로(迫間房太郎)는 원래 와카야마현 출신으로, 1880년 5월 부산 개항 직후 오사카에 있던 종합무역상사 부산 지점의 지배인으로 한국에 건너와 무역업으로 돈을 벌었다. 이어 토지와 가옥 등의 구매로 거금을 챙겨 부산 제1의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 그는 이미 1918년에 일본에서 목수를 데려다가 동광동 2가 5번지에 하자마 총본점 점포 겸 2층 주택을 세우기도 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하자마탕원(迫間湯源)”을 지었는데 이곳은 현재도 ‘동래별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sup>109)</sup> 화려한 이층 저택 ‘하자마’ 별장은 돌로 된 옥조와 세면대를 비롯하여 당시 최고의 건축기술이 동원된 낭하와 계단, 외벽 등으로 치장되었으며 특별히 일본에서 황가의 친인척 등 귀한 손님이 올 때 머물던 특실도 갖추고 있었다.

## (2) “조선제일의 온천”

<조선총독부>는 한일합방 이후 “기생”, “금강산”, “근대도시로서의 경성”과 함께 “온천”을 관광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한 관광정책의 목적은 식민지를 건설한 제국주의의 성과를 내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홍보에는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식민지를 타자화하면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보람과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것은 총이나 칼로 식민지 백성을 굴복시키는 무력정책에 비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방법이었으므로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관광”은 점차 일본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109)이서규, 『사진으로 본 일제시대의 잔영』, 지식의 날개, 2005, P.60.

의 일상생활 속에까지 녹아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평양, 부여, 경주 등 유서 깊은 전통도시를 명소로 소개하여 관광지화 하는 예가 많았다. 동래 역시 전통문화가 남아있으면서도 일본인이 취향에 맞는 온천이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물론 그 관광여행의 출발점은 “대륙의 관문(關門)”인 부산이었다. 관광정책을 주도하는 <조선총독부>는 관광지에 대한 많은 안내서와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1930년대에 <부산관광협회>가 작성한 관광지도에는 “관광은 먼저 부산부터!”라는 구호가 들어가 있었다.

부산은 관부연락선과 경부선 등 철도가 북과 서로 이어져 있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도시였다. 많은 일본인들은 배와 철도, 자동차를 이용해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목포, 대구, 경성, 평양 등지로 이동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이미 그러한 대도시에는 어디나 ‘일본인거류지’가 있었고 조선지배와 대륙침략을 위해 이주한 상인과 군인 등이 자리를 잡아 살고 있었다.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마치 일본 본토와 유사한 분위기에 일본문화와 일본식 생활양식 등이 퍼져 있었다.<sup>110)</sup>

그렇게 퍼져나가는 문화 중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관광지(觀光地) 순례(巡禮)”라 불리던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경부선 관광지도에 “관광은 먼저 부산에서부터”, “관광은 멋진 한반도의 현관 경남”으로 씌어져 있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면 이렇다.

“부산에서 구포역을 지나면 잠깐 사이에 큰 강의 연안 우측을 휘어져 달리면 오대천의 하나인 낙동강이 있다. 곧 삼랑진에 도착하는데, 여기가 경전남부선의 분기점으로 명산 장어뎡밥을 팔고 있고, 마산진의 방면을 갈아타고 삼랑진으로부터 산간으로 들어가면 곧 본선 가운데 가장 긴 터널을 지나면 이곳이 성시터널이고, 성시터널을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대구. 여기가 경주의 분기점, 아주 시야가 넓게 되면 바로 김천역이 되고 여기는 경북선의 분기점이다. 이곳을 지나면 대전이다. 대전, 호남지방으로 가려면 여기서 갈아 타야하고 좀더 가면 아취가 풍부한 조치원역 다음이 천안역, 온양온천에 가려면 여기서 약 20분 정도 가면 다음이 수원역, 도중에 옛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송환역이라는 곳이 있다.”<sup>111)</sup>

110) 1920년대 중엽의 부산 모습에 대해 작가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부두를 뒤에 두고 서쪽으로 뚫들어서 전차길을 끼고 큰 길을 암만 가야 좌우편에 2층집이 쭉 늘어섰을 뿐이요, 조선집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염상섭, 「만세전」(고정일 편, 『동서한국문학전집 3권』, 동서문화사, 1988년), P.68.)

국제항인 부산의 전면에 구호 - “관광하러 오세요! 먼저 살펴보세요! 대륙에서 처음인 국제항 부산!”- 가 내걸렸다.

또 위에서 인용한 『조선의 관광』에는 일본인 관광객 및 기업인들에게 동래온천으로의 관광을 권유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실려 있었다.

“끝이 없는 환락경이 있다면 번영하는 큰 거리도 있고, 동양 최고라고 칭송받는 도개교는 시간마다 거대한 입을 열고 거대한 배를 오가게 한다. ---- (중략) ----. 유명한 온천도시 동래, 청초한 해운대는 불과 수십 분에 갈 수 있고, 얼마나 쾌적한 관광도시인지, 못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살펴볼 시간을 만드세요.”<sup>112)</sup>(밑줄 필자)

이처럼 대대적으로 선전된 부산에서도 동래온천은 으뜸으로 꼽는 명소였다. 왜냐하면 교통편도 좋고<sup>113)</sup>, 근대적 여관의 설비와 요정 그리고 온천마을로서 온천마을다운 정서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봉래관 같은 여관에서는 교통비와 목욕비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한다든가, 홍보를 위해 과자(탕전병(湯煎餅))을 만들어 제공한다든지, 손님의 기호에 따라 글과 그

111) 今井晴夫 編, 『朝鮮之觀光』, 朝鮮之觀光社, 1939年, P.189.

112) 今井晴夫 編, Ibid., 189.

탈 것	출발지	요금	소요시간
동래온천행 전차	부산역앞	편도 25 전 왕복 40 전	35 분
동래온천행 자동차	부산역앞	2시간 마다 발차 편도 30 전 왕복 50 전	30 분
해운대행 기차	부산역앞	편도 35 전 왕복 50 전	
해운대행 자동차	부산역앞	1시간 마다 발차 편도 40 전 왕복 60 전	50 분
택시	부산역앞	구시가 80 전 초량방면 1엔 동래방면 3엔 해운대방면 4엔	

113) 동래온천 및 해운대의 교통편

림을 넣은 도자기를 구워 판매하기도 했다.<sup>114)</sup>

온천과 관련된 당대 풍속을 엿볼 수 있는 염상섭의 「만세전」에는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부연락선’ 안에 마련된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목욕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길게 그려져 있다.<sup>115)</sup> 그들 일본인 중 하나는 조선인을 모집하여 공장이나 광산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일이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돈 몰 것”이라고 자랑한다.

당시의 ‘관부연락선’은 한국에서 한 밀천 잡아보려는 일본인들의 이동경로였다. 그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별거벗은 몸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매우 시사적이다. 그것은 대중목욕 문화가 제국주의 일본에서 식민지였던 한국으로 건너왔다는 사실과 일본인들의 식민지 지배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하겠다.

차차 동래온천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목적지로 떠올랐다. 그래서 동래온천은 당시의 여행 가이드북에서 “조선 제일의 별세계”, “조선 제일의 온천”이라는 찬사와 더불어 소개되었다.

동래온천이 이처럼 번성한 이유를 임화순은 세 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는 동래온천의 근대화와 관련된 온천의 개발, 경영, 이용이 일본인 중심이 되어 동래온천의 이름이 일본국내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일본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동래온천을 방문하였고, 덩달아 일반인들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일본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여행안내서에 동래온천에 관한 장문의 소개문이 실린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온천개발의 모델로 삼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도 시행되지 않던 다양한 시도를 동래온천에서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도는 ‘종점철도’나 ‘이상향을 상징하는 벚꽃 가로수길’, ‘내탕화’, ‘철도와 온천의 복합적 경영’, ‘교외도시 형성’, ‘별장지대 형성’ 등이다. 세 번째는 192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경편철도의 사업권을 인수하고 일본군을 위한 요양소 역할을 겸하는 대형호텔을 세워 경영에 나섰기 때문이다.<sup>116)</sup>

이처럼 동래온천은 일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락형 온천”으로서, 일본인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온천”, “도시 교외의 고급주택도시”, “한국

---

114) 부산은행, Op.cit.,P.291.

115) 염상섭, Op.cit.,PP.55~59.

116) 임화순, Op.cit., P.203.

제일의 유명온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동래온천장의 시설과 문화를 살펴보자.

우선 동래는 온천장 건설 초기인 1909년부터 경편철도가 들어간 ‘종점형 온천장’으로 개발되었다. 일제는 동래의 경편철도를 비롯하여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덕산온천은 장항선, 해운대 온천은 동해남부선 등을 건설하여 “철도에서 온천으로”라는 슬로건을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시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종점형 온천철도’는 일본 국내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선진적인 시설이었다.

다음으로 이곳 동래온천에는 1925년 무렵의 일본에서조차 일반화되지 않았던 ‘내탕(內湯)’이 여관에 구비되어 있었다. 내탕이란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만을 위해 독자적으로 마련한 ‘자가용 탕’을 말하는데, 이는 일본인 여관 경영자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내탕보다 공동탕 신축이나 개축이 일반적이었음에도 일본인들은 동래온천을 비롯한 온양, 도고, 해운대, 유성 온천 등지에 이를 설치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sup>117)</sup> 더구나 내탕 시설은 일본인 여관만이 아니라 한국인 여관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동래온천장에는 두 곳의 의사출장소(醫師出張所)와 약종상, 그리고 두 곳의 산과와 네 곳의 약품 판매업소가 있어, 당시로선 의료시설이 가장 잘 구비된 지역에 속했다.

또 한국의 다른 온천지보다 더 많은 오락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3개소에 파칭코점과, 테니스 코트가 있었으며 그밖에 라디오가 2개로 서울과 도쿄, 나고야 등지에서 송출하는 방송의 청취가 가능했다.

이러한 시설을 배경으로 이곳 온천장에서는 매년 4월이 되면 ‘벚꽃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을 위의 제2절 (1)항, ‘각 지방의 유명온천’에서 살펴본 당시의 여타 온천과 비교해보면 동래온천의 뛰어난 점이 잘 드러난다.

**가.교통** : 유성온천은 대전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 온양온천은 경성에서 3시간 거리, 수안보온천은 충주에서 5리, 해운대와 동래온천은 부산역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있었다. 특히 해운대와 동래는 시의 중심에서 거리도 가까웠고 정기합승차가 있어서 다른 온천들에 비해 온천으로의 이동이 훨씬 편리했으며 온천장 중심지까지 전차가 들어갔다.

**나.숙박 시설** : 온양온천은 일식여관 5곳, 한식여관 4곳, 수안보온천은 일식여관 3곳,

117) 임화순, Ibid., PP.205~206.

한식숙박시설 11호, 유성온천은 일식여관 4곳, 한식여관 4곳, 해운대온천은 4개의 여관(내당 보급)이 있었지만 동래온천의 여관의 숫자보다는 적은편이다. 동래온천은 이 당시에 호텔을 포함하여 일식여관 8곳, 한식여관 4곳으로 어느 곳보다 숙박시설이 많았다.

다.평균 욕객 수 : 온양온천은 연평균 14만900명, 수안보온천은 연평균 4만명, 유성온천은 파악이 되지 않고, 해운대온천은 연평균 4만1천명, 동래온천은 연평균 6만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다. 온양온천이 인구가 밀집된 경성에 가까운 온천임을 감안하면 동래온천의 욕객수가 상당한 수입을 알 수 있다.

라.오락시설 : 온양온천은 파칭코와 테니스코트 등의 오락시설, 수안보온천은 학교 소유의 테니스 코트 하나가 전부였고 유성, 해운대온천은 오락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4곳의 온천 중 온양온천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오락시설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본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 지역의 동래온천에는 파칭코와 테니스코트, 라디오 등 갖가지 최신 오락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그 시설 중 철도와 오락시설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각 지방의 온천을 살펴 보면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덧붙여 기생문화에 대해 덧붙여 살펴 보고자 한다.

당시 기생은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대표적 이미지이자 아이콘으로서, 흔히 기생의 모습이 “조선적인 미(美)의 표상”으로 각종 관광안내책자나 엽서, 선전 포스터 등에서 소개되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간행한 팸플렛과 간행물 속에 그들의 이미지가 차용되었다. 이는 기생이 단순히 전통적 풍속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응시하는 시선, 혹은 식민지를 표상하는 다양한 수사(rhetoric)의 전략과 관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sup>118)</sup>

그런 가운데 동래온천은 1932년의 경우 일본인 게이샤와 유녀50명과 한국인 기생 20명이 영업하는 국내 최대의 유락지(遊樂地)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온천장에서는 기모노 차림으로 거리를 걷는 게이샤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더불어 한국인 기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나름대로 성업을 이루었다. 기왕에도 부산은 경남 최대의 유락 지정지에다 창기 보유지였고 예기들의 ‘동래권번 대온습회’나 ‘태평관’, ‘상생관’, ‘봉래관’, ‘부산극장’ 등에서의 신작발표와 공연, 예기들의 선향대(線香代) 요구, 새로운 예기들의 이력 등은 대단한 보도거리였다.<sup>119)</sup>

118) 권혁희, 「일제시기 조선관광과 기생」(부산근대역사기념관, Op.cit.), PP.215~218.



이 시기를 전후하여 근대 온천 및 휴양도시로서의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된 동래온천은 그 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크게 변함이 없었다. 다만 오래된 건물이 헐리고 개축되거나 증축되는 작은 변화 속에 온천 휴양도시로서의 황금기를 누렸다.

여기서 일본인에 의해 동래온천이 변화한 의미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자. 조선조까지 특수계층이 사용하던 동래온천은 식민통치의 성공을 선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나서서 권장한 “조선관광지”의 하나로서, 식민제국주의자들의 계획에 따라 일본인의 취향에 맞게 건설되었다. 동래온천에는 일본에도 일반화되지 않은 ‘온천철도’나 ‘내탕’ 등의 시설이 갖추어졌다. 앞에서 인용한 “끝이 없는 환락경이 있다면----”을 운운하는 광고문구나 “유명한 온천도시 동래”라는 선전 문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제시대에 한국에 소개된 근대문화가 일본이 앞서 받아들인 서구문화와 일본문화의 혼합이자 복제인 것처럼, 온천문화 역시 일부 서구 문화적 특성과 일본 문화적 특성이 섞인 채 한국에 이식되었다. 그러한 온천문화 중 동래온천의 특징을 임화순 교수는 “보양형”과 “환락형”이라 정의한 바 있다.<sup>120)</sup> 과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래온천은 숙박시설과 내탕이 잘 갖추어진 보양의 장소인 동시에 일본 게이샤나 한국 기생들이 성업 중인 환락의 공간이었다.

## 제4절. 한국인의 동래온천 경영 참여

### (1) 한국인의 경영 참여

1909년에는 부산진을 시발점으로 한 경편철도가 개통되었으며, 1914년에는 동래온천장 주변까지 도로가 개통되었고, 1915년에는 동래온천장선, 양산-동래선이 확장되었다. 같은 해에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가 대욕장을 개업하고 1916년에는 동래-남면선, 동래-대변선이 확장되는 등 비약적인 도

---

119) 한석정, 「만주지향과 종속성-1930~40년대 부산 일본거류민의 세계」(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집, 2006년 9월호), PP.277~278.

120) 임화순, Op.cit., P.206.

시개발이 행해졌다.

이러한 시기에 양반 출신으로서 동래군 안에 살고 있던 한국인 유지들이 출자하여 동래온천장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숙박시설을 설립할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인이 온천 관련 사업에 뛰어든 것은 한국인들이 동래에서 벌어진 눈부신 변화로부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923년 동래온천을 조사한 조선총독부의 보고서 『조선지질요보(朝鮮地質調査要報) 제2권』 중 「동래온천조사보문(東萊溫泉調査報文)」에는 일본인의 여관과 한국인의 여관이 뒤섞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여관인 ‘계산관’, ‘일신관’, ‘침천관’ 등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sup>121)</sup> 과연 이 여관들이 한국인의 자본으로 설립한 것인지는 확인 할 길이 없다. 다만 다른 일본인여관과 다름없이 각지에서 온 한국인 손님을 숙박시키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듯싶다. 한국인들로서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숙박시설보다도 한국인이 경영하는 시설이 이용하기에 편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동래를 방문하는 온천객은, 『조선지질조사요보(朝鮮地質調査要報) 제2권』, 「조선지질조사보문(東萊溫泉調査報文)」에 의하면, 1923년 시점에서 하루 평균 458명이었다. 그 중 일본인은 225명, 한국인은 233명으로, 의외로 한국인 온천객의 수가 일본인 보다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천장에 이주하는 일본인이 372명, 한국인이 448명이었음을<sup>122)</sup> 생각하면 실제로는 일본인의 비율이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온천이용객들은 제사 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온천장을 찾거나, 전통예능을 보여주는 연회회(演芸會) 등 특별한 볼거리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온천장을 찾았던 것 같다.

그 후에 1933년에 발행된 『조선취락』을 보면,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여관은 9집, 한국인이 경영하는 여관은 ‘김천관’(온돌13칸), ‘계산관’(온돌14칸), ‘일신관’(온돌9칸), ‘명월관’(온돌5칸) 등 4개소가 있었다. 숙박료는 1일 2식을 기준으로 특등실은 2엔 40전, 1등 실은 2엔, 2등 실은 1엔 60전, 3등 실은 1엔 20전, 4등 실은 80전 이었다. 또 온천지에 이주한 일본인의 가구 수는 84호, 인구는 381명인데, 한국인의 가구 수는 297호, 인구수는 1448명이었다.

---

<sup>121)</sup>竹国友康,Op.cit., P.159.

<sup>122)</sup>竹国友康,Op.cit., P.160.

1923년 『동래온천조사보문 조사서』에 의하면 일본인 거주자의 수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거주자의 증가는 6배에 달했다. 또 비록 적기는 해도 중국인 이주자의 수도 1 가구에 2명이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을 합하면 온천지에는 모두 합해 가구 수 382호, 인구 수 1831명의 이주자가 있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일본에서 온 게이샤나 지방에서 일정기간 돈벌이를 하러온 노동자를 합친 인구는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온천정의 발전과 함께 온천 관련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국인도 많아졌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온천 시설의 증가로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해도, 한국인이 온천여관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는 없었다. 1923년 당시 동래온천의 천원(泉源)은 43개소였지만, 온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33개소, 나머지는 용출력이 없거나 온천온도가 낮아서 온천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버려지거나 허드렛물로써 사용되거나 했다. 온천의 용출력은 천원(泉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만주철도주식회사>가 소유한 7호 천원은 24시간마다 160석(약 29 킬로리터)을 용출하는 최대의 것이었다. 이 7호 천원(泉源)으로부터 도관을 이은 온천물은 다음역장에 제공되었다.

‘만주철도주식회사 온천탕’, ‘봉래관 온천탕’(가족탕), ‘육군 전지요양소 욕장’(욕장은 부지 내에 소재), ‘아라이여관 공동탕’(가족탕), ‘동래면 온천탕’, ‘홍엽관’, ‘다카세 저택’, ‘일본정’,<sup>123)</sup> ‘동래면이 경영하는 온천탕’을 빼면 모두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 저택, 요정이었다.

온천 시가지는 착착 형성되어가고 있었지만, 온천 이용권은 거의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한국인이 경영하는 온천여관에서는 온천원으로부터 직접 온천물을 끌어다 쓰는 곳은 없었다.

그런데, 1930년대 초부터 동래온천에서는 온천 사업자들이 각자 사용하는 천원(泉源)의 온천 용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온천정 공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온천 천원(泉源)을 둘러싼 혼란이 생겼다. 그 당시에 원래부터 1910년대에 동래온천을 개발한 온천장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선가스전기회사>는 그 개발 권리를 1922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 매각하고, 그 뒤에 <만철>이 1924년에 한국에서의 철도경영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1930년

---

123)竹国友康,Op.cit.,P.162.

이후에는 <총독부 철도국>이 동래온천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동래온천의 천원(泉源)을 파는 공사를 놓고 동래지역의 한국인과 <조선총독부>가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과 <총독부>가 동래온천을 독점 소유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은 그냥 여관을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온천정을 굴착할 권리를 획득하여 온천지 전체의 경영에 참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

그러한 동래주민의 운동에 대하여 일본인 여관경영자들은 동래온천의 경영권이 <철도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으나 주민들의 운동에 격렬함이 더해져 <철도국>도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24)</sup>

그 후에 1930년대에 들어가 동래온천에 대한 한국인의 자본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천원(泉源)으로부터 온천물을 끌어내는 여관경영도 시작 되었다. 1942년 8월에는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동래온천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는 일본인이 40명, 한국인이 17명에 이르렀다.

이렇듯 한국인이 동래 온천의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전통문화로서의 온천 문화를 이어받는 동시에 근대문화로서의 대중적 온천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물론 일제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한 문화 역시 그들의 통치와 사회풍속에 맞게 타자화되고 창조되었지만 한국인들도 차차 이를 수용하는 가운데 근대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동래온천장의 경영에의 참여나 이용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 (2)대중목욕문화와 관광문화의 발상지

일제치하의 부산 지역은 근대화와 더불어 풍속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뀌었다. 부산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서양 문화의 습합(習合)과 접변(接變)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9세기 전반부터 부산 인근 김해에서는 일본 비단으로 만든 부채를 사용하고, 부인네들이 일본 양산을 썼으며, 남자들이 일본도를 차고 다니고, 일본산 벼루와 미농지(美濃紙)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왜풍은 왜관 주변인 초량이나 동래지역이 더 강했을 것이라 여겨진다.<sup>125)</sup> 말하자면 부산 지역은 한. 일간의 문화 접변(接變)에 의해 형성된<sup>126)</sup>

<sup>124)</sup>竹国友康,Ibid., PP.167~172.

<sup>125)</sup> 이영 외, Op.cit., P.359.

<sup>126)</sup> 김정하, Op.cit., PP.189~192.

“3원적 체제를 이룬 접점(接點)지대”였던 것이다.<sup>127)</sup><sup>128)</sup>

일제는 이곳에 서양건축기술을 익힌<sup>129)</sup> 일본인 건축기술자들을 보내 “왜색 짙은 의양풍(擬洋風) 건축물”<sup>130)</sup>, 즉 서양에서 18세기에 유행하던 제국주의풍,<sup>131)</sup> 혹은 “영국풍 르네상스식 화강석 건물”<sup>132)</sup> 건물을 지었다. 주택 건축에는 벽돌을 사용하고 다다미가 깔리고 취사나 온열에 전통도구인 ‘로(爐)’나 ‘이로리(囲爐裏)’ 외에 ‘빠치카’와 ‘유담뽀’를 갖춘<sup>133)</sup> 이층집을 지었다. 그리고 관리나 지식인들, 인텔리여성들이 ‘주택 개량’을 주창하는 가운데 부유층, 권력층의 전유물이던 “문화주택”이 차차 한국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변형된 ‘화. 양. 한 절충형(和洋韓折衷型)’<sup>134)</sup>이 당대인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동래온천은 주로 왕족이나 양반이 드나들며 이용하는 시설에 불과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일반인의 왕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한국인들로서는 온천을 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고 생활에 여유도 없었으므로 일부러 온천을 찾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민지 치하에서의 동래온천장의 개발과 발전은 이곳을 방문한 부산 및 전국의 한국인들에게도 지대한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 또,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는 없었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차차 ‘관광’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한국인에게서 ‘관광’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동래에 있는

---

127) 김정동, Op.cit., 2001년, P.48.

128) 역으로 한국에서 살다 해방과 함께 소위 ‘인양자(引揚者)’가 되어 일본으로 귀환한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출신들도 상당수가 온돌과 김치, 민요“아리랑” 등을 생활 속에 익히고 살았다.(최인택,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생활사 - 경험과 기억의 사례연구」, 부산경남사학회 일제시기 부산지역일본인사회연구팀 공동학술발표회 자료집, 2003년, PP.111~134.)

129)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89년, P.298.

130) 윤일주 교수 논문편찬회 편, 『한국근대건축사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창회, 1987년, P.10.

131) 김동욱, Ibid., P.309.

132) 윤일주교수 논문편찬회 편, Ibid., PP.38~39.

133)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 영향으로 귀족의 주택이나 신사에 ‘고상식(高床式)’ 건축을 채용해왔는데, 그 양식이 근대기 서양의 영향으로 이층집이 되었다.(杉本尙次, 住まいエスノロジ, 株式會社住まい圖書館, 1987년, P.117.)

134) 함한희, 『부역의 문화사』, 살림, 2005년, P.25.

여관 중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여관을 한국인이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해방이 되기 직전 한국인이 경영하던 동래의 여관으로는 ‘동일여관’, ‘내성관’, ‘금천여관’, ‘이향원’, ‘일성관’, ‘명월관’, ‘벽초관’, ‘산해관’(현 반도맨션 자리), ‘침천관’, ‘계산관’, ‘일신관’ 등이 있었다.

1930년 최서해의 「누이동생을 따라」 이후 한국인들의 문학작품에도 온천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문학작품에서 일반명사로서의 온천장은 결국 숙박시설과 술집(요정), 그리고 기생이다.<sup>135)</sup>

그 중에서도 다음은 온천문화에 심취한 여자주인공의 행동과 의식을 그린 소설의 한 대목이다.

이튿날 식전에 부산역에 내려서는 곧 정거장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자동차를 잡아 타고 동래 온천으로 올라갔다(중략)

“동래관은 크기는 하지만 욕실과 이름이 명호(여관이름)만 못해.”

하며 자동차는 명호 여관 앞에 놓였다.

누 집 부인이 아니면 어느 택 아가씨와 같이 아름다운 하인들이 나와 허리를 굽히고 땅에 엎드려 두 사람을 맞았다. 모두 순영에게는 처음 보는 광경이요, 처음 보는 호강이었다.

“사람이란 이렇게 살게야!”하며 순영은 한 번 더 웃었다. 얼마나 넓고 깨끗한 방이고.(중략)

순영은 그 날 종일 펍도 행복되었다. 목욕을 하고 와서는 책을 좀 꺼내어 보려고 하였으나 책이 눈에 들어오지를 아니 하였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거닐기도 하고, 창으로 내다보기도 하였다. 화젓가락으로 불을 붙였다가 파내다가 매화꽃 가지를 코에 대어 향기를 킁킁 맡다가 이 모양으로 마음이 흥분하였다.<sup>136)</sup>

이렇게 순영은 “정거장 호텔”을 거쳐 당시의 가장 사치한 소비문화가 기다리는 동래온천으로 간다. 우선 “정거장 호텔”부터가 자본주의가 낳은 교통망과 관광이 결합된 상징이다. 일본에서도 온천대중화시대는 “교통망이 완성되어 여행이 자유롭게 된 명치 말기에서 대정, 소화”에 거쳐 나타난다.<sup>137)</sup> 이제 그 현상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주인공은 이를 향유하며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한다’고 말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여

135) 조갑상, 『이야기를 걷다』, 산지니, 2006년, P.143.

136) 이광수, 「재생」 (『이광수 전집 2』 삼중당, 1966년(중판), PP.70~71.)

137) 日本民俗學會 編,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1980年, P.80.

관도 아니고 일본인이 세운 명호여관(鳴戶旅館;나루토료칸)의 “넓고 깨끗한 방”에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흥분”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자본의 매혹적인 위력 앞에 노출된 식민지인은 스스로의 욕망을 발견하고 키운다.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이광수의 또 다른 작품 「그 여자의 일생」<sup>138)</sup>에서는 자신의 나체를 바라보며 스스로 황홀해하는 내면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장면의 묘사는 “이상한 것, 지금까지에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제 몸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부드럽고 불그레한 살빛, 팔과 다리와 몸의 선----”이라 시작되고 있다.

이처럼 온천문화에 매료되는 풍습에 대해 이경훈 교수는 “온천은 나체를 허용하며 나체는 욕망을 벗겨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돈에 매개된다. 이것이 온천의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39)</sup>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근대적 관광이 동태를 비롯한 전국의 명승지에서 형성되고 퍼져나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근대문화로서 강조한 일반인들의 목욕문화 역시 신속하게 한국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 크게 작용했음을 생각해야 한다.

당시 식민지를 경영하는 조선총독부 통치자들이 한국의 위생 상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에는 콜레라, 발진티푸스 등 전염병의 발생이 많아 쇼와6년(1931년)에 환자 수 1 만 5608인, 사망자 2535명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페디스토마, 이질, 말라리아 환자가 유행하는 부락이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또 나병 환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놀랄 만큼 많아 <나병예방협회>를 설립하고 섬 하나에 2천 내지 3천명의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조선은 의료 기관이 불완전하고 일반인의 위생사상이 유치하다."<sup>140)</sup>

이에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위생’을 강조하여 1932년 6월 1일 경상남도 훈령 17호, 경찰서 사무규정에서 위생계에 각종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을 맡겨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다.<sup>141)</sup> 그래서 소독이나 방역과 더불어 주기적인 목욕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138)이광수, 「그 여자의 일생」(『이광수 전집 7』삼중당, 1962년, P.42.

139)이경훈, 「미두.온천.영어」(시학과 언어학회, 『시학과 언어학』 4호,2002년), P.67.

140)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38輯(生活狀態調査)(其五)朝鮮の聚落』,1931年.

141)부산광역시, 『부산시사』, 1983년,PP.939~940.

이처럼 일상문화 중에는 일제시대에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처음에 한국인들로부터 다소간 저항을 받았다. 하지만 개중에는 그러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생활문화도 적지 않아 온천장에서 퍼져나간 음식이나 의복, 축제, 오락, 스포츠, 미디어, 공연 등의 문화는 한국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특히 온천장에서의 온천욕의 습관이나 관광 문화는 인근 부산을 비롯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앞 절에서 언급한 동래온천의 “보양형”과 “환락형” 특징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래온천의 문화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갖게 했다. 그리하여 동래온천장에서 퍼지기 시작한 문화는 더욱 강하고 빠르게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 온천장을 오고가던 전차는 일본인이나 부자들만이 아니라 한국인 서민계층이 애용하던 터였다.

온천장역을 구덕운동장이나 영도 노선보다 일찍이 개설한 것은 온천장의 온천욕객의 편의를 위함이었다. 온천장욕객을 위해서는 인력거(광복 후 얼마 뒤에 없어짐)도 있고, 택시도 있었지만 그 인력거는 기생 전용이나 다름없고 택시는 금만가(金滿家)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비해 전차는 시민 상대의 서민의 발이었다.<sup>142)</sup>

그 위에 비록 동래온천이 초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지만, 차차 한국인들이 여관 경영 등에 참가하면서 일부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중관광이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외부인에 의한 개발로 관광산업의 통제권을 잃거나 관광객의 요구에만 부응하게 되는” 국제관광의 문제점<sup>143)</sup>을 일부나마 한국인들 스스로의 참여로 줄여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동래온천장은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손으로 경영되면서도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

142) 최해군 지음, 『부산에 살며 부산을 알며』, 해성, 2003년, P.190.

143)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9년, P.285.





## 제4장. 해방 후의 관광문화와 목욕문화

### 제1절. 온천관광 및 목욕문화의 확산

#### (1) 온천관광의 유행

일제강점기에 번성했던 동래온천장의 관광에 관련된 사업체는 해방 이후 한국인이 인수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여관이 ‘백록관’, ‘동래호텔’, ‘맹호여관’, ‘황정여관’ 등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동래온천은 1942년에 설립된 <동래온천주식회사(東萊溫泉株式會社)>가 전반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동래온천주식회사>는 일본인 여관업자, 요리업자 등 40여 명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회사로, 탕원의 관리운영과 공중목욕탕의 위탁 경영 등을 맡아 왔다. 미군정 초기에도 <부산시>가 동래온천의 운영권을 이어받고 있었으나 사실상 한국인 주주로 바뀐 <동래온천주식회사>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광복 후의 흑심한 혼란기가 지나고 차츰 새롭게 질서가 회복되자 1946년 1월 20일자로 온천의 관리와 운영권을 부산시가 가지게 되었고 <동래온천주식회사>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송전(送電) 중단으로 전기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온천수를 끌어올려 나누는 급탕(給湯) 운영이 한 때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온천수의 공급이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다. 고심 끝에 풍차를 이용한 발전안(發電案)이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구식 원동기를 사용하여 겨우 온천수를 끌어올렸다.

동래호텔과 주요 별장은 미군정청이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군인호텔이 설립되어 한국에 진주한 미군휴양지로서의 기능도 담당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기생을 고용하고 한국요리를 접대하는 ‘요정’은 정치가와 재계인이 드나드는 장소로 명맥을 유지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도 동래 지역권 기생의 수가 1백 20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그런 사정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동래의 번성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의 온천 문화의 유포와 확산을 낳았고, 일제시대 이래 온천여행은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 거리의 온천을 찾아가는 ‘관광’ 여정이 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에 있는 온천에 관광객이 모여들어 온천욕과 오락 등 각종 근대문화를 보고 듣고 즐겼다.

동래의 번성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의 온천 문화의 유포와 확산을 낳았다. 이제 온천여행은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 거리의 온천을 찾아가는 ‘관광’ 여정이 되기에 이르러 전국에서 관광객이 동래에 모여들어 온천욕과 오락 등 각종 근대문화를 즐겼다.

## (2) 공중목욕탕의 확산

대중탕은 신라시대에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주로 사찰 안에서 예불을 드리기 전에 심신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목욕탕이었으므로 우리가 아는 대중탕은 아니었다. 대중적인 목욕이 일반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역시 일제 시대 온천에서의 목욕방법이 유포되면서부터라고 본다.

한국의 온천이 대중화된 모습으로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15년 자연적으로 분출된 온천수를 개발하여 만든 유성온천이 시초다. 그러나 유성온천의 개발이 반드시 일본인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발한 김갑순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인근 계룡산 사찰의 여승들이 심신수련을 위해 목욕하는 풍습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이르러 온천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몰려들자 땅을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온천을 개발한 것이다. 아무튼 이로부터 온천에서의 대중 목욕의 시작이 된 셈이지만, 1915년 무렵 유성온천에 드나들 수 있었던 계층은 극히 일부 일본인들이거나 한국인 부호들로 제한돼 있었다.

다른 자료에서는 “1924년에야 평양에서 처음으로 공중목욕탕이 문을 열었다”는 언급을 볼 수 있다. 평양의 일본식 대중탕은 주로 여관 2층에 있었는데, 목욕을 마친 사람들은 아래층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거나 목욕탕을 찾아다니며 몸을 파는 유녀(湯女)라는 직업 매춘 여성과 오붓한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sup>144)</sup> 하지만 이곳은 도박이나 매음을 겸하는 곳이었으므로 대중적인 목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대중적 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대중적 목욕문화로 이어진 것은 동래 온천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래온천은 1923년에 이미 전국적 관광지가 된 이래 일반인을 위한 버스까지 운행될 정도였으므로 그 파급력 또한 컸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1920년대 초부터 이곳의 목욕문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

---

<sup>144)</sup>이서규, Op.cit., P.56.

동래 온천장에서 경험한 온천욕은 그곳을 찾았던 여행객들이 사는 고장에서 재현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어느 지방에서나 온천수가 솟아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나 읍 등 비교적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온천장의 시설 일부를 모방한 대중적인 목욕시설이 들어섰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듯, 가운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탕이 있고, 주위에 돌아가며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와 샤워기가 있고, 한 구석에 따로 사우나 시설을 마련한 공중목욕탕의 기원이 된 것이다. 그러한 온천시설의 복제는 대중적인 목욕탕 건설과 함께 목욕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제 온천으로의 관광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동네에 지어진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면서 목욕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즉, 예전에는 명절 등 특별한 날을 맞아 하천이나 샘물, 가정에서 반신욕 위주로 목욕을 하던 한국인들이 더 자주, 더 공개된 방법으로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중목욕탕의 유포와 파급은 시대적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해방 후 한동안은 사회적 혼란과 전쟁,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목욕문화가 정착될 여유를 누리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1960년대 들어와 본격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차차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목욕을 자주 해야 '위생적'이라는 생각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시골의 면 단위까지 지역마다 대중목욕탕의 수요와 분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민들의 목욕하는 횟수는 점점 잦아졌고 이용자 수도 늘어났다.

드디어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금전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마을의 공중목욕탕 외에도 가정마다 목욕탕이나 샤워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공중목욕탕은 마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탕이나 사우나 등 가정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로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듯 고대로부터의 명성을 얻어온 동래온천은 전통과 역사를 이어 일제 시대에도 유명관광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근대문화로서의 온천욕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대중적인 목욕문화로 뿌리를 내리게 한 '발상지'로서의 역할도 해냈다. 동래온천이 관광보다 일상생활에서의 목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동래는 근대적 관광지로서보다도 대중 목욕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제2절. 온천관광지로의 동래온천장

### (1) 관광지로서의 동래온천장

정부 수립과 함께 동래온천장은 다시 옛날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물밀듯 부산으로 몰려오자 온천장도 급격한 변모를 일으켰다.

우선 온천장은 당시 대중교통의 왕자였던 전차의 종점인데다가, 그 무렵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물 사정이 비교적 좋은 곳이라는 점 등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외곽지로부터 판자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휴전과 함께 다시 안정을 되찾을 때는 이미 온천장은 짜임새 있던 옛날의 온천 휴양도시가 아니었다.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찬 주택지에 포위되어 더 이상 발전의 여지를 잃은 볼품없는 거리로 변하고 말았다. 겨우 동래호텔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여관들만이 천년이 넘는 역사와 영화를 간직해온 옛 동래온천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1963년 시영 공중목욕탕은 목욕요금이 어른 7원, 어린이는 2원이었고 일반 대중탕은 어른 이 10원, 어린이 5원이었다. 여관의 독탕과 가족탕 사용료는 50원 안팎이었다. 이때 온천장의 목욕요금은 시내 일반 목욕탕 요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동래온천은 단순히 온천수의 목욕 기능만을 강조한 나머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더불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온천 휴양도시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후진성과 빈곤으로 인해 그때부터 제자리에서 정체하고 말았다. 그나마 동래온천장의 명맥을 이어간 것은 1960년대에 '영도다리'와 함께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목적지가 된 덕분이었다. 1964년 금강공원, 1965년 금강공원 내 동물원, 1969년 식물원 등의 개장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관광지로 이름을 유지했다.

1970년에 들어와서는 부산지역의 확대와 인구 증가, 온천장 주변의 공장 입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부도심 형성 등으로 관광지로서의 특성과 함께 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앞 다투어 무절제한 사설 탕원(湯源)을 개발하여 온천장은 단순한 상업지역으로 전락했다.

부산시는 1970년 부산시 전체의 관광사업 육성 계획의 하나로 온천휴양지로서의 동래온천의 새로운 개발에 착안, 이 일대를 "관광지"로 고시(告示)하였다. 이어 1981년에는 온천법(溫泉法)에 의한 온천지구로의 지정고시에 의해 탕원 개발의 억제와 온천자원의 활용을 위한 보호, 관리 조치가 취해

졌다.

여기서 동래온천의 특징에 대한 2000년 현재 동래구 내부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역사</b>		신라시대 신문왕(서기628) 때에 원춘공이 목욕하였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있다.
<b>온천지구</b>	<b>지정일</b>	1981년 9월 22일
	<b>면적</b>	510,000m <sup>2</sup>
<b>온천공</b>	<b>계</b>	35공
	<b>이용 공</b>	19공
	<b>휴지 공</b>	16공
<b>온천수</b>	<b>온도</b>	29~35도
	<b>성분</b>	중탄산나트륨 게르마늄 함유 알카리성 온천
	<b>부존량</b>	750만 톤
	<b>채수 가능</b>	2,500톤 / 1일
<b>이용 효과</b>		세포재생촉진, 위산 과다, 담석증, 통풍, 피부미용

1982년만 해도 온천장에는 총 578개의 업체에서 음식점이 2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숙박업소 13.7%, 전문소매점 4%, 병원 3.6% 순으로 나타나 온천관광지로서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1982년 온천 용출지역의 범위는 동래구 온천1동의 시 소유 4호공을 중심으로 반경 70미터 안에 밀집되어 있다. 온천공은 한때 40여개에 달하였으나 28개만 남아있었고 온천공의 깊이도 초기의 5미터에서 현재 130미터에 이르고 있었다. 채수량은 일일평균 2350 M/T로 연간 이용객수는 65만7,000명, 즉 하루 평균 1800여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온천자원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동래온천은 점차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1986년 5월에는 황폐화·슬럼화 되고 있는 동래온천 지역의 일부를 '도심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지정되었던 '관광지' 지정이 해지됨으로써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sup>145)</sup>

<sup>145)</sup> [http://www.busan.go.kr/open\\_content/tour/geumjeong/6260000-arc-2.0-069.jsp?nSelected=7](http://www.busan.go.kr/open_content/tour/geumjeong/6260000-arc-2.0-069.jsp?nSelected=7)

## (2) 동래온천장의 오늘과 내일

오늘날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제1의 항구도시”라고 일컬어진다. 용두산 주변지역인 남포동과 광복동, 중앙동 일대를 비롯하여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PIFF광장, 부산항, 해운대해수욕장(아쿠아리움), BEXCO, 광안대교 등으로 외국손님을 맞고 있다.

그 중 동래온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통편도 비행기를 비롯하여 열차와 고속버스가 연계된 편리한 관광지이다. 그 주변에는 금정산과 금강공원, 범어사가 있어 온천욕과 더불어 관광도 즐길 수 있다.

‘동래관광호텔’은 1988년 5월 온천장 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도시형 온천센터인 ‘허심청’을 1991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이리하여 1994년 온천장에는 숙박업소 1백 51개소, 이.미용업 93개소, 유기장 17개소, 음식점 1백 23개소, 식품점 1백 75개소, 의료기관 48개소 등이 입지하고 있었다.<sup>146)</sup> 이리하여 2007년 현재 온천장에는 숙박 및 음식점체 4257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체 871개가 영업 중에 있다.<sup>147)</sup>

하지만 현재 동래온천장은 온천자원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점차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온천 목욕업이 활성화 된다면 목욕탕 주변에 있는 숙박업과 음식점, 의류점 등도 덩달아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온천장 전체의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동래구청은 온천장일대와 금강공원 일대를 묶어 웰빙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 동래구청은 1일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산 29의 9번지 일대 금강공원을 2012년까지 '웰빙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래구청은 이를 위해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금강공원 44만㎡를 관광지로 지정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해 지난 1월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래구청은 '웰빙파크'에 온천요양시설과 새 공원, 복합문화관, 전망타워 등을 조성할 예정인데 온천요양시설에는 4만5천㎡의 부지에 메디컬센터와 피트니스센터, 스파테라피(온천치료) 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1만8천㎡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새 공원에는

146) 동래구청, 『동래구지』 제5편~제11편, 1995년, PP.1437~1438.

147) 「동래구 사업체 기초통계」, 2007년, P.2.

방사장과 새 공연장 등을 꾸미고, 2천500㎡ 규모의 복합문화관에는 영화관과 다양한 공연장이 마련되며 주변에 잔디광장과 야외무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마당이 1만5천㎡ 정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금강공원 입구에서 케이블카 하차지점까지 1km 구간에 걸쳐 경관조명을 갖춘 테마거리가 만들어지고, 케이블카 하차지점에는 스카이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48)

위와 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동래온천장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동래온천은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온천지가 아닌 부산시민과 동래온천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자 상호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온천문화 내지 목욕문화의 발상지였던 동래 온천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온천문화를 선도할 온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이루어 내려면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149)

첫 번째는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동래온천장개발은 급격한 수요에 대응한 공급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21세기에는 질적으로 성숙한 온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대상에서 문화적, 감성적 대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이 경제중심의 성장에서 문화중심의 성숙으로 마인드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풍부하지만 메마른 무기적 온천장보다는 차라리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인간적 감수성을 채워주는 온천장문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고유문화를 창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온천장의 옛것을 되살려 새롭게 계승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현대의 국제사회 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온천장만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창조해야 한다. 네 번째 자연친화적인 온천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동래온천장의 발전은 자연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래 자연친화적이었던 우리 삶의 규범이나 진면목을 되찾아 이를 현대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하여 옛날과 다른 거대온천장이 된 동래온천을 다시 원래처럼 친수(親水), 친산(親山)의 틀을 갖춘 명승지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건강한 환경으로의 변화, 즉 진정한

---

148) 연합뉴스, 2007.06.01 보도 내용.

149) 이 부분은 동래온천을 부산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기 위하여 김일곤 (전)부산발전연구원장이 쓴 「세계 속의 부산 위상」(부산발전연구원, 『부산 사회문화의 이해』, 1997년, PP.308~311)의 주요 내용을 이 논문의 취지에 맞게 고쳐 쓴 것이다.



의미에서 가고 싶은 온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동래온천을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어메니티’를 향상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온천이용을 소비생활이 아니라 문화생활로 바꾸되, 온천장의 각종 시설물도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하여 저품질을 양산하기보다 고품질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어메니티’ 향상을 위해서는 공해 없는 환경, 즉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각과 관의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의 동래온천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본다.

## 결론

이 논문은 동래온천을 통해 한국온천의 전통과 역사, 근대적 온천문화와 관광, 목욕문화라는 주제를 통해 부산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문화란 인간의 현재를 증명하는 존재의 증거와도 같은 것이다. 길게 이어진 전통이라고 해서 좋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만 말하기도 어렵다. 문화란 마치 살아있는 인간이 교류를 하며 영향을 주고받듯 늘 ‘습합(習合)’과 ‘접변(接變)’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온천욕을 포함한 ‘목욕’은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위생, 관광에 두루 걸친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목욕은 인간의 몸과 일체하고 지역과 일치하고 근대와 일치하는 습관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동래온천에 관한 연구는 동래온천의 역사이자 지역특산물과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동래를 비롯한 부산 문화권, 나아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동래온천의 문화는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에는 고려시대 나름대로,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나름대로 동래온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래온천문화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고대로부터 형성된 전통문화의 계승이다. 다만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나 양반들만이 이용한 온천이 특수한 상위계층만의 전유물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일제 시대에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차원에서의 ‘위생’에 대한 강조와 ‘관광’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동래온천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에 대한 ‘타자화(他者化)’, 즉 제국이 식민지를 응시하며 발견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온천으로서의 가치가 발견되고 휴양지로 개발된 것이다.

물론 그 최대의 수혜자는 식민경영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식민통치의 주체자로서의 일본인들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미 일제 시대부터 동래온천의 경영에 한국인이 참여했으며, 여행이나 숙박, 스포츠, 매스미디어의 활용 등 한국의 근대적 풍속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 이제 더 이상 온천문화는 특수계층의 것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 온천이나 목욕문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관광과 목욕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논문은 동래온천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일부 특수계층에 한정됐던 문화가 근대화 과정에서 일반화되었음에 주목했다. 다시 온천문화에 일제의

식민제국주의적 시선이 투사되었으면서도 이를 한국인들이 수용하게 된 경위를 살폈다. 결국 오늘날의 동래온천문화는 전통적인 것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오늘날은 부산 지역의 한국인들은 이를 주체적으로 향유하고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

좋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 남고 몸이 잊지 않는다. 일본문화, 한국문화를 가르는 편벽한 시선으로는 이를 포착할 수 없다. 앞으로도 동래온천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끄는 대상으로서 계승 될 것이며 동래온천의 문화는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에도 계승될 것이라 믿는다.

그처럼 현재 존재하는 온천문화를 앞으로도 지켜나가려면 그 문화의 계승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이처럼 논문으로 정리해두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일제시대 중기 이후 동래온천의 상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해방 이후 한국에서 공중목욕탕이 확산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 1.자료

- (1) 『삼국유사』
- (2) 『삼국사기』
- (3) 『고려사』
- (4) 『조선왕조실록』
- (5)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1970년.
- (6)이중환,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9년
- (7)이광수, 『이광수 전집 2권』, 『이광수 전집 8권』,삼중당, 1962년.
- (8)염상섭, 「만세전」(고정일 편, 『동서한국문학전집 3권』,동서문화사,1988년)
- (9)부산광역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2005년.
- (10)부산광역시, 『부산시사』,1989년.
- (11)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권.
- (12)동래구청, 「동래구 사업체 기초통계」,2007년.
- (13)동래구청, 『동래구지』,1995년.
- (14)연합뉴스, 2007.06.01일자 방송원고.
- (15)今井晴夫 編, 『朝鮮之觀光』,朝鮮之觀光社, 1939年.
- (16)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39輯,朝鮮の聚落』,1939年.
- (17)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38輯,朝鮮の聚落』,1931年.
- (18)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2年.
- (19) 『風俗地理』,新光社, 1930年.
- (20)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東萊溫泉調査報告(慶南の産業)』,大和商會印刷所,大正13年.
- (21) 「内外彙報」(明治27年 11月 17日字)
- (22)부산시청 홈 페이지

[http://www.busan.go.kr/open\\_content/tour/geumjeong/6260000-arc-2.0-069.jsp?nSelected=7](http://www.busan.go.kr/open_content/tour/geumjeong/6260000-arc-2.0-069.jsp?nSelected=7)

### 2.저서 및 논문

- 한국 저서

- (23)제길우. 김용욱, 『부산온천에 관한 연구』,친학사, 1964년.
- (24)김용욱, 『부산의 역사(歷史)와 정신(精神)』, 전망, 2001년
- (25)최해군 지음, 『부산에 살며 부산을 알며』,해성,2003년,
- (26)이종률, 『부산항이야기』, 해성, 1997년,
- (27)부산경남역사연구소편, 『부산의 역사』, 늘 함께, 1999년.
- (28)부산은행, 『부산, 역사 향기를 찾아서』, 효민 D&P, 2005년.
- (29)부산민학회, 『부산을 배웁시다』
- (30)동래기영회, 『동래기영회 150년사』,1996년.
- (31)부산발전연구원, 『부산사회문화의 이해』,1997년.
- (32)이영.김동철.이근우, 『전근대한일관계사』,한국방송대출판부,1999년.
- (33)김승,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정과 변화과정』, 부경역사연구소.
- (34)부산직할시, 『부산의 내력』,1989년.
- (35)이서규, 『사진으로 본 일제시대의 잔영』,지식의 날개,2005년
- (36)김정동, 『문학속 우리도시기행』,옛오늘, 2001년.
- (37)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기문당,1989년.
- (38)金烈圭, 『韓國文化のルーツ 韓國人の精神世界を語る』,サイマル出版会, 1987年.
- (39)전상국 외, 『강원전통문화총서』,国学資料院,1997년.
- (40)尹一桂, 『韓國近代建築史研究』,尹一桂教授論文集編集會,1987年.
- (41)함한희, 『부역의 문화사』,살림, 2005년.
- (42)문옥표,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 문화』, 소화, 2006년.
- (43) 설혜심, 『온천의 문화사』, 한길사, 2001년.
- (44) 요시미 순야 저, 이태문 옮김, 『박람회-근대의 시선』,논형,2004년.
- (45) 조갑상, 『이야기를 걷다』,산지니,2006년, P.143.
- (46) 전경수, 『문화의 이해』,일지사, 1999년, P.285.
- (47)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전예원,1997년,

- 한국 논문

- (48)한석용 외, 「동래온천지역의 지열수와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대한지질공학회, 『지질공학 제9권 제3호』(영어),1999)
- (49)김용욱, 「온천의 법률관계-동래.해운대 온천을 중심으로」(부산대법

- 학연구소, 『법학연구』, 1978)
- (50) 김재관, 「동래온천 취락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년)
- (51) 윤양수, 「동래온천장의 도로교통 정비에 관한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1996년)
- (52) 원학회, 「수안보 온천관광취락의 형성과 구조」 (한국지리교육학회, 『지리학연구』, 1984년)
- (53) 김홍운, 「우리나라 온천지역의 도시화와 온천관광도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교육학회, 『지리학연구』, 1982년)
- (54) 조성호. 이경자,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1989년)
- (55) 김현지, 「온천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인지도-온양.이천.보문온천을 중심으로(溫泉觀光影響に對する地域住民認知度-溫陽.利川.普門溫泉を中心に)」 (관광.레저연구학회, 『관광, 레저연구』, 2003년)
- (56) 김현, 「온천관광지개발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2007년)
- (57) 김시중 「온천관광지 이미지, 속성 및 선호도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5년)
- (58) 임화순, 「동래온천의 근대사적 의미」 (부산근대역사기념관,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2007년)
- (59) 최운鉉, 「아산지역 온천관광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 (60) 차철욱, 「1910년대 부산진 매축과 그 성격」, 부경역사연구소.
- (61) 안병기, 노재경, 「유성온천과 유성문화」 (『충남대학교지역개발논총』, 1995년)
- (62) 이경훈, 「미두.온천.영어」 (시학과 언어학회, 『시학과 언어학』 4호, 2002년)
- (63) 권혁희, 「일제시기 조선관광과 기생」 (부산근대역사기념관,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2007년)
- (64) 한석정, 「만주지향과 종속성-1930 ~ 40년대 부산 일본거류민의 세계」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집, 2006년 9월호)
- (65) 김정하, 「근대식민도시 부산의 성격에 관한 고찰」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 제9집, 2005년)

(66)김일곤, 「세계 속의 부산 위상」(부산발전연구원, 『부산 사회문화의 이해』, 1997년)

(67)최인택,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생활사 - 경험과 기억의 사례연구」, 부산경남사학회 일제시기 부산지역일본인사회연구팀 공동학술발표회 자료집, 2003년.

-일본 저서

(68)鄭銀淑, 『韓國の「昭和」を歩く』, 祥伝社, 2005年.

(69)秋葉隆, 『朝鮮民族誌』, 六三書院. 1954年 影印本.

(70)白水晴雄, 『温泉のはなし』, 1994年.

(71)竹国友康, 『韓國温泉物語』, 岩波新書, 2004年.

(72)日本温泉科学会, 『温泉学入門-温泉への誘い-』, コロナ社, 2005年.

(73)放送大学教育振興会, 『朝鮮の歴史と文化』, 1996年.

(74)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 新曜社, 2004年.

(75)西村進, 『温泉科学の最前線』, 日本温泉科学会, 2004年.

(76)石川理夫, 『温泉の法則』, 集英社親書, 2003年.

(77)野口悦男, 『温泉遺産』, 日本温泉遺産を守る会, 実業之日本社, 2003年.

(78)八岩まどか, 『温泉と日本人』, 青弓社, 2002年.

(79)上垣外憲一、雨森芳洲、中公新書、1989年.

(80)杉本尙次, 『住まいエスノロジ』, 株式會社住まい圖書館, 1987年, P.117.)

(81)日本民俗學會 編,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1980年.